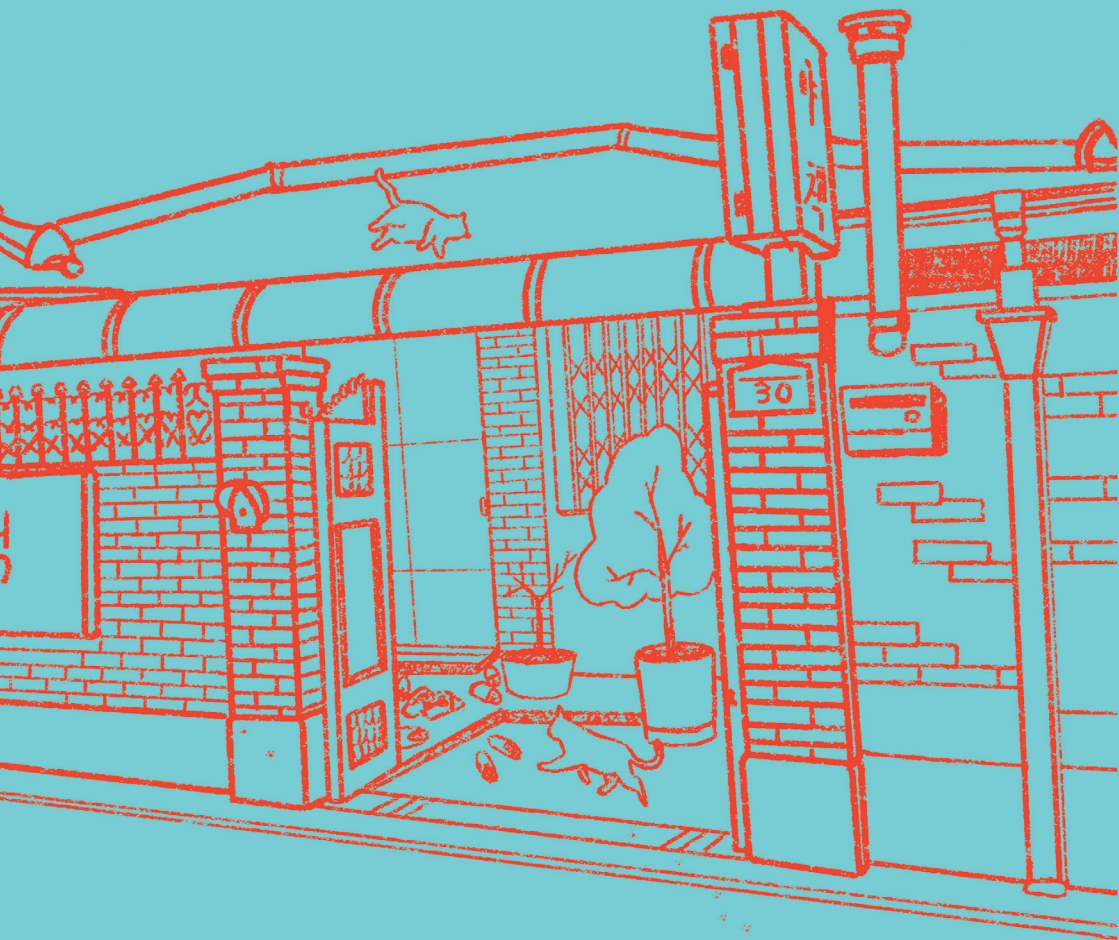


정릉야생



2 들어가는 말

시시콜콜
별일 있어
산다

- | | | |
|----|-------------------------------------|-----|
| 5 | 주민과 함께 가는 복지 | 김정훈 |
| 11 | 무대 위 푸르고 시린 예술가들 | 문지원 |
| 20 |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 김가희 |
| 28 |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발전하는 게 아니겠는가? | 황현숙 |

스삭스삭
마음
스치다

- | | | |
|----|------------------------------|-----|
| 38 | 막걸리를 찾아서 | 마르 |
| 43 | ○○!! 결혼했다!! | 노지혜 |
| 48 | 그냥 떠난 러시아 | 이혜성 |
| 51 | 전등사와의 인연 | 허영미 |
| 57 | 숲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 | 김은희 |
| 64 | 기억(옛 것) | 김준엽 |
| 70 | 아직 곁에 있다 | 편집부 |

2019년

7월

과거를 돌아

75	회고록을 통해 본 여성독립운동가의 삶	김가희
83	다이어트, 적당한 운동과 소소한 식사면 됩니다	임민창
87	대화과 공감	허광석
93	2019년 지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고경남

2019 야채문학

99	연극	이봄
100	연날리기	이혜성
102	새	이밥
111	서프러제트(Suffragette)와의 대화	김해경
117	십대들의 마음사전	오디세이학교 (민들레 친구들)
123	안톤체홉 공연을 마치고	허영미
125	독립영화 보러 많이들 와주이소	김정훈

들어가는 말

올해도 마을잡지 '정릉야책 여름호'가 나왔습니다. 올 여름호는 예년의 여름호 보다, 두껍게 만들어졌습니다. 글을 기고해준 분들이 많았던 얘기입죠. 기고된 글이 많았다는 건, 기존에는 다루지 못 했던 얘기들이 보다 많이 다루어졌단 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총 스물한 개의 글이 실렸습니다. 특히, 시가 두 개가 실렸고 소설도 하나 올라왔네요. 물론 지난 호에도 '야책 문학상'을 통해 시와 수필이 올라오긴 했으나, 올해부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릉야책을 채워 줄 동네시인과 동네소설가가 발굴됨에 따라 문학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섹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게 뜻 깊네요. 새롭게 구축된 문학섹션을 기반으로 전국잡지가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만

새로운 섹션이 만들어진 것 이상으로 기분 좋은 사건도 있네요. '운동 오지라퍼', '뜬금 여행기', '정릉문학' 등 기존에 있었던 꼭지들이 호에 호를 거듭하고 있군요. 운동을 통해 건강과 몸매를 회복해가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어느 날 문득 궁금한 곳이나 추억의 장소를 뜬금없이 찾아가고, 잊히고 있는 정릉의 문인들을 다시 알려주는 일들은 계속해서 '정릉야책'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호 탐방과 인터뷰 섹션인 '시시콜콜'에서는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술가와 삶이 예술인 활동가 그리고 이제 막 예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오랫동안 재단에 맞서 학교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동구여중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대부분이 유행을 좇고 힐링만을 추구하며 나약해져가는 이 사회에서 고집스레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당탕탕 '스윗스윗' 깨를 쏟아내는 20대 신혼부부의 이야기와 보드카 질병 마시겠다고 무작정 러시아를 다녀온 20대의 이야기를 보노라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갖는 기성세대들의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 깨닫게 되고, 십대 아이들이 자존감, 자존심, 착함, 선함, 사실, 진실, 순수, 순진 등의 낱말들을 자신들의 느낌으로 풀어낸 사전을 읽노라면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십대 때는 모두 철학자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십대들이여, 나이 들어서도 늘 철학자로 살아가길!

영화 얘기도 두 편이나 실렸네요. '야책'에서 매달 보았던 독립영화들에 대한 감상문과 영화를

통해 '서프러제트' 운동을 소개해주는 글은 단순한 감상문과 비평이 아니네요. 읽는 이로 하여금 삶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대화와 소통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한의사가 직접 전해 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좋은 대화와 소통의 방법들도 소개해주는데, 유쾌하게 읽힙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복원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네요. 이 글은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나 사람의 얘기만 들으라고 자연에 강요한 것에 대한 반성과 지구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전등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자연과 내면을 만나는 글과 숲 해설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세세한 감정을 담아 풀어 놓은 글을 읽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새 전등사의 밤하늘 별빛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고 북한산의 이름 몰랐던 풀과 나무들이 명찰 하나씩 달고 자리를 잡는답니다. 정릉에서 태어나 정릉에서 36년을 살다가 처음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는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 놀던 정릉일대를 회고하며 쓴 글에서는 장롱 깊숙이 간직해둔 앨범의 먼지를 털며 들춰보는 흑백사진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두 각자의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가네요.

'호박이닝쿨책'이 처음 '유료로 정식 극장에서' 올린 낭독공연에 참여했던 배우가 쓴 글도 읽는 내내 미소를 짓게 합니다. 직업배우가 아닌 사람들이 대본 해석부터 소소하게는 날씨와도 싸워가며 만들어낸 공연 이야기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연극 대본 같네요.

이번에도 글쓴이들은 대부분 동네의 청년학생들이고 아줌마 아저씨들입니다. 직업작가가 될 기회와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기고된 글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릉야채를 채워준 분들은 이미 모두 작가로 살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도 정릉야채가 이미 작가인 모든 분들에게 재미난 놀이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정릉야채 2019 여름, 편집부



시시콜콜
별일 없이
산다



주민과 함께 가는 복지

- 정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진이) 탐방기

글 김정훈

울초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마을활동가 뽀용의 전화를 받는다. '더하기축제' 준비를 같이 하잔다. 동네책방 호박이닝쿨책을 차려놓고 나름 동네사람들과 섞어보려 애쓰던 터라, 이 참에 동네행사도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다, 싶어 회의에 참여한다.

더하기축제. 올해는 6월 1일에 열렸다. 즉, 실제 행사는 하루. 그런데, 2월초부터 그 준비를 시작했다. 그 하루의 행사를 준비한다고 모인 이들이 어림잡아 50명이 넘는다. 나 같은 일반 주민부터 동네활동가들까지. 그 하루의 행사를 위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토록 오랜 기간 얘기를 나눈다고? 더군다나 오로지 효율만을 강조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아니 이미 여러 해를 거쳐 벌어지고 있었

다. 어떻게? 건 그렇다 치고, 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이상한 일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 축제의 최초 발의자이자 실 집행자인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을 만나게 되며 또 그 곳에 축제용품을 만들러 오가며 위 의문에 또 다른 의문이 더해진다.

솔직히 학교 졸업 후 25년 만에 이런 사람들과 이런 문화를 처음 만났다. 그 사람들과 그 문화가 어떨까요? 딱 80년대 대학 학생회 같기도 하고, 그 시절 농활 가는 학생들 같고, 그 시절 시골교회 청년 선생님들 같고, 70년대의 건실한 농촌 지도자 청년들 같더라는 말이다. 공동체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의식으로 눈빛 초롱초롱 발하던 그때의 젊은이들 같았다 그 말이더라.

도대체 이 사람들과 이 곳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과 이 곳이 무엇인지 알면 ‘더하기축제’ 같은, 현대사회의 유행의식으로 도저히 가능치 않은 일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알게 되겠지.

시간을 약속하고 조금 고생스레 복지관을 찾아간다. 가는 길이 고생스런 이유는 그 위치가 외진 언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탐방을 맞아주는 홍봉기 과장 왈, 처음 복지관을 세울 당시 이 곳 국회의원 및 관리들이 큰 고민 없이 위치를 공약하고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이란다. 음... 그저 땅값이 싼 곳만을 찾았나 보구나! 우리나라의 당시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복지에 대한 감수성이 어땠을지 새삼 느껴진다.

자리를 잡고 홍과장의 브리핑이 시작된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복지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설명이 시작된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 복지는 복지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선택적 복지란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의 대상이 된

다. 복지관이 지어질 당시 외진 곳에 생긴 이유가 대략 짐작이 간다.

실제로 우리나라 복지활동이 처음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즉, 빈민구제가 가장 큰 목적이었던다. 그렇게 시작되었으니, 정릉에 처음 복지관이 들어설 때도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복지를 '배부는' 시혜적 관점에서 건물이 지어진 것이로구나.

하지만 현재 정릉복지관의 사업들은 복지관이 처음 들어설 때의 관점 및 주민들과 동떨어진 그 위치와는 아주 다르다. 정릉복지관이 추구하는 복지, 그리고 흥과장을 비롯한 정릉복지관 직원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복지는 무엇인지, 그 것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그 소개가 세세하게 이어진다.

정릉복지관 주변엔 학교들이 많다. 청덕초등학교, 고대부중, 고대부고, 국민대학교. 현재 정릉복지관의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이 학교들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목표 하에 실제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들이 만들어졌다. '반짝반짝 빛나는', '다슬기 가족', '도란도란 인생 그리기', '어르신 가을 나들이', '청춘극장' 등등.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그램에선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청소년, 경찰서, 성북구청, 한국전력이 관계를 맺어 보행안전을 논의하고 그 실천을 함께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 눈높이에 맞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한다. 국민대 체육과 학



생들과 동네 어르신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학교의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도 해주시고 관련 운동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께 그렇게도 인기가 좋단다. 대학 교정에 직접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며 강의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에너지를 얻으시는 게 분명한 것 같다.

복지관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주민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러도 다닌다. 일명 '한 평 복지관'. 2년 전이었다. 복지관 직원 두 분이 호박이닝쿨책을 방문했었다. 호박이닝쿨책 공간을 마을주민들과 함께 공유 가능한지 애기들을 나누다 가셨다. 아! 그 방문 또한 '한 평 복지관'을 위한 작업이었구나, 새삼 깨닫는다.

'한 평 복지관'이란 이런 것이다. 마을주민들이 자주 들르는 일종의 단골가게에 복지관 직원이 상주를 하며 마을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가는 장인 것이다. 아니 이런 아이디어들은 도대체 누가 내는 거야? 복지관 활동들 모두가 신기한 것들뿐이라 브리핑을 듣는 내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들이 가능한지 스스로 질문을 하는데 홍과장의 브리핑 속에 그 답이 등장한다.

“이렇게 복지관이 직접 개입하는 건 낮은 단계의 복지 활동이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복지관은 그 네트워크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것이 복지관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그는 얘기한다.



복지란 무엇일까? 어린 시절, 테니스 스타 비에른 보리(Björn Rune Borg) 때문에 스웨덴을 알게 되고 그 나라에 있다는 복지라는 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 어릴 적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그 갭이 어마어마했었다. 그 때문인지 아직도 내 감성에는 복지라는 것은 일단 나라의 부가 크고 정부가 사회주의 성격이 있어야 하며 그 사회의 부유층이 교양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느끼고 있었으나... 정릉복지관이 추구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접하게 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복지는 정말 낮은 단계의 복지 개념임을 깨닫게 된다. 즉, 그저 돈으로만 해결하는 복지.

물론 나라의 부가 가능한 한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쓰여 지는 건 아주 근사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도 시혜적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것 보단(시혜적으론 애초에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정부와 사회를 강제하는 것이 보다 높은 차원의 복지 아닐까? 홍과장의 브리핑을 들으며, 복지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축약어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과 그 직원들에게서 발산되던 독특한 문화와 정서를 이제 좀 알 것 같다. 더하기축제 준비를 위해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본 그 곳 직원들의 일상이 새삼 떠오른다. 방과 후 아이들이 복지관에 놀러 와서 스스

럼 없이 간식을 요청하고 복지관 직원들은 그 아이들과 간식 하나 놓고 티격
태격 부딪히며 잘도 논다.

그랬구나. 이 복지관은 주민들에게 복지를 베푸는 곳이 아니었구나. 주민들
속에서 함께 놀며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는 곳으로
구나!

언뜻 보기엔 비효율적으로만 보였던 더하기축제 준비과정도 새삼 이해가
간다. 복지관과 동네활동가들이 축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려던
것이 아니었구나.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한 많은 주
민들과 “함께” 하려던 것이었구나!

주민들에게 그들이 나설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과
그 직원들 감동적이다. 세상에나! 브리핑을 들으며 울컥거릴 수도 있구나!
세상에 보다 많은 “정릉복지관 (내젠 이 이름이 이젠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
반명사다)”이 생겼으면 좋겠다.

무대 위 푸르고 시린 예술가들

- 배우 김한, 연출가 전웅

글 문지원

겨울 추위를 몰아내던 해가 반갑기도 잠시, 따스함이 더위라는 말로 부담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한 6월의 어느 주말에 혜화를 찾았다. 혜화에는 다가오는 여름 더위만큼 뜨거운 젊은 연극제가 한창이었다. 거리마다 젊은 연극인들의 열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한창 꿈 많은 연극학과 전공생들이 준비한 연극을 한 편 보고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힘들다고 소문난 요즘 청춘, 요즘 청년들.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예술을 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 있어서일까? 다른 예술도 아닌 연극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청년이란 어떤 존재일까? 부담스럽던 노란 햇빛도 주황빛을 띄며 점차 누그러지는 시간, 20대의 한복판에서 있는 두 예술인을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웅 : 안녕하세요, 26살 전웅이라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연극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이제는 팀을 만들어서 연극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 : 제 이름은 김한이고, 26살입니다. ‘한’이라는 이름은 순우리말인데, ‘우리’라는 뜻이에요. 현재 배우로서 계속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연을 올리셨죠?

김한 : 네. 최근에 <묵묵부답>이라는 연극을 하나 올렸고, 공연을 올리는 시기에 단편 영화 하나를 찍었어요. 다음 달에 단편영화를 하나 찍을 예정인데, 자꾸 들어오는 역할이 30대 초반이라... ‘아 이쪽이다.’ (웃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참이에요.

하하하. 맞아요. 최근에 하신 공연 <묵묵부답>을 봤는데, 거기서도 나이 있는 역할이었잖아요. 연기를 굉장히 잘 하셔서 놀랐어요! 진짜 아버지 같았거든요. 사투리도 이번에 배운 거라면서요.

김한 : 되게 힘들었어요. 이 작품을 제가 썼는데, 쓸 때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될 줄 모르고, 나중에 누가 잘 하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연출이 그 역할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웃음)

전웅 : 그게 자기인지 몰랐어. (웃음)

그럼 대본을 쓸 때, 그 역할을 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김한 : 사실 글을 쓰면서 출연하는 것도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연출이 이 역할을 맡겨서 당황했죠. ‘어, 나 전라도 사투리 못 하는데.’ (웃음) 독학으로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전남 사투리를 쓰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창작부터 출연까지, 무대를 위해 공을 아주 많이 들이셨네요.
대체 연극의 어떤 매력에 빠진 건가요?

김한 : <묵묵부답>을 하면서 느낀 건, 직접 쓴 내 글을 관객들이 공감해주었



“마지막 순간까지 만들어가는 게
연극인거 같아요.

을 때 가장 좋다는 점이에요, 나의 고민거리를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타장르에 비해 연극의 매력은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

전웅 :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연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고
민하고, 그 고민을 관객과 공유하는 그 느낌이 좋아요.

김한 : 마지막 순간까지 만들어가는 게 연극인거 같아요.

굉장한 명언이네요! 그럼 연극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한 : 연극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중학교 삼학년 때인데요. 제가 공부
를 좀 잘 했는데, 나름 전교 50등 안에 들었습니다. (웃음) 별 다른 꿈은 없었

어요. 하루는 처음으로 반 전체가 해화로 공연을 보러 갔는데, <완득이>라는 공연을 봤어요. 연극을 처음 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멋지다, 해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연극부가 있는 곳으로 갔죠. 생애 첫 오디션은 고등학교 연극부 오디션이었어요.

전웅 : 저는 대학교 진학 후 연극 연출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과학회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뮤지컬 버전으로, 원어로 공연했어요. 제가 재수를 해서 동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한 학년 위의 선배랑 동갑이니깐 친구가 됐죠. 그 때 그 친구가 동아리장이었어요. 그 친구가 제게 공동 연출을 제안해서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흥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 당시 같이 활동했던 형이 대학로에 스태프 자리를 소개해줘서 음향 오퍼를 했었죠. 이걸 하면서 안산에서 해화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이거 한번 제대로 해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갔다 와서는 제대로 해보자고 생각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면 몹시 게을러지는 스타일이예요.

진로를 정할 때의 두려움이나 힘든 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과감하게
이 길을 선택했나요?

김한 :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는 힘들다는 말을 해주기도 했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그래도 그 때는 피부로 와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와 닿기는 해요. (웃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러 단기알바를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죠.

전웅 : 저는 천천히 결정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은 경험을 많이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서 그런지 어려움은 없었어요. 점점 경험을 해보다가 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요. 아니,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한 : 계획성이 없어서 (웃음)

전웅 : 그냥 하는 거죠.

김한 : 목표를 먼 미래부터 잡는 것 보다는 현재에 충실하자는 마인드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즐거운 일을 하자! 지금도 연기를 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그만둘 거예요.

전웅 :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성숙했네요. 보통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할 텐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면 몹시 게을러지는 스타일이어서요.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반복적이고 규

칙적이기만 한 일은 힘들었을 거예요.

출근하기 싫을 때 출근을 안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대단한데요? (웃음)

이 길을 안 갔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김한 : 저는 이 길을 안 간다는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웅 : 아마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단순 업무를 길게 하는 성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길게 못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연극을 해야만 하는 운명 같아요. 두 분은 작년 성북구에서 진행했던 <울스타즈>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셨잖아요.

김한 : 저는 한 연출가하고 오래 작업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른 연출가를 만나서 신선했어요. 다양한 연극 세계가 있고, 이런 연극의 세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방식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었고, 이 연출님의 세계를 더 알아가고 싶다고 느꼈던 게 참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건 연출님이 항상 제게 믿음을 주셨던 거. 연기를 하면 확신이 없기도 했는데,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믿음을 채워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김한 : 일단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감사한 기회였어요. 외부사람과 함께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길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과 작업을 했는데, 이번처럼 예술계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작업하는 그 자체가 좋았죠. 그리고 주변에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많이 만나서 좋았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전웅 : 특히 연출님이 모르는 걸 탁 내려놓고 다 같이 고민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편했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놀라워요.

김한 : 다양한 나이대의 분들과 작업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사람을 만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나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해주는 멋진 어른들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각자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술인으로서,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할 때, 지역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있어 차이를 느끼시나요?

김한 :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김포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데 서울은 많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포시는 주로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가족단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죠. 김포시에도 아트홀 같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비어있을 때 청년들에게 자주 열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김포시 청년네트워크 같은 게 있어도 좋을 것 같네요.

전웅 : 안산에는 안산문화재단이 있어요. 다른 곳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언가 시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대학생 예술 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야외극을 위한 야외공간을 공연무대로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안산 거리극도 있고.

흥미롭네요. 서울시도 최근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이 많으면 청년
예술인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것이 자리

잡히지 않은 청춘의 한복판에 서 계신데, 20년 후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김한 : 아내랑 오순도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집안일 좋아하거든요. 꼼꼼하게 하는 성향이라. (웃음) 집안일 꼼꼼하게 하면서 아내랑 함께….

전웅 : 물걸레질 하면서.

김한 : 그 즈음이면 기계가 해주지 않을까?

전웅 : 그건 돈 있는 집에서, 없으면 직접 짜야죠. 자기 노동력으로. (웃음)
전 계속 연극하고 싶어요.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같이 작업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멋진 생각이네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전웅 : 지금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한 : 난 없는 거야, 거기에?

전웅 : 찾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못만났다’는 거네요. (웃음)

전웅 : 참, 이 자리 어렵네요. (웃음)

농담이에요. 이제 질문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20년 후의 자신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20년 후면, 46세네요, 두 분 모두.

김한 : 행복하니? (웃음) 뭐, 인생은 언제나 계획처럼 되지 않고, 언제나 힘들겠지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도 많겠지만, 그 순간에는 행복하자.

전웅 : 살면서 처음 해보네요. 생각 없고 많이 흔들리는 애인데, 많이 컸기를 바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이제는 겪어온 과정들에 비해서 평탄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래. 행복하자.

두 시간 남짓, 두 청년과의 인터뷰는 어느새 끝에 다다랐다. 절정의 더위도 노을과 함께 사그라진 지 오래. 이렇듯 시간은 시나브로 흐르고 순간은 돌아보면 지나있다. 두 청년 예술인들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일들 또한 그러할 것이다.

부디 시간의 역사를 잘 쌓아 그들만의 빛나는 연극을 완성하기를 기원하며, 인터뷰가 끝난 후에 홀로 그들의 기승전결을 궁금해 해본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 〈까치발〉의 권우정 감독

글 김가희

권우정 감독을 알고 지낸 지 만 4년이 되었다. 성북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해 보자고 처음 만나 협동조합을 함께 만들고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미디어, 영상 중심의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권우정 감독이 최근에 새 영화 〈까치발〉을 내놓았다.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시네마스케이프 상영에 이어 지난 6월 특별상영회를 했다.

* 2016 인천다큐멘터리 포트 '베스트 코리안 프로젝트상' 수상, 2016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치&캐치 다큐멘터리 포스트핀상, CGV 아트하우스 개봉지원작. 2016 전주 국제영화제 코리아 피칭 우수상. 2019 전주 국제 영화제 코리아 시테마 스케이프 프리미어 상영

영화를 만들며 여러 상과 지원을 따내는 것을 지켜봤던 나로서는 기대가 무척 컸다. 장애자녀 부모들을 인터뷰하고 그들과 팟캐스트와 연극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기 때문에 막연히 장애 관련 내용을 다루는 영화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까치발> 트레일러를 통해 권우정 감독의 딸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영화를 보니 권우정 감독 자신과 가족의 사적인 내용이 더 중심에 있었다. 나에게 이 영화는 그녀가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면서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과 극복의 이야기로 다가왔다.

인터뷰에 앞서 영화 배급의 현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영화배급사들이 이미 많이 망해서 몇 개 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독립영화 배급사들은 사회적 사명감으로 일하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배급사가 아니라 프로듀서 개인이 임의단체를 만들어 극장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났다고도 한다. 외국의 경우 TV 방영과 극장 상영 둘 다를 목표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극장에서 먼저 틀고 이후에 IPTV나 온라인 또는 공동체 상영 및 TV 방영 등을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배급사 입장에서 극장 수입보다 그 이후의 다양한 방식의 상영에서 오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배급을 통해서 이후의 수익을 보장받으려 하는 목적이 크다.

배급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인터뷰로 들어가려고 보니, 이미 잘 알고 있는 관계라 이상한 쑥스러움을 무마시키기 위해 자기소개를 재밌게 부탁해보았다.

별명이나 애칭이 있으신가요?

중·고등학교 때 별명은 ‘우정의 무대’였어요. 나이가 나오죠? (웃음) 대학 때는 머리 염색, 노란 색 브리지를 하고 다녀서 친한 친구가 미친 고양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 야옹이로 불리다가, 지금은 아이 학교에서 닉네임을 부르는데 ‘고냥’으로 정했어요. 나이에 따라 별명도 변모를 겪게 되네요. 마치 인생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신을 동물이나 식물에 비유한다면?”이라는 질문을 준비했었

는데 이미 고양이라는 답이 나왔네요.

그런데, 아, 고양이가 같은 성격이 되고 싶은데 실제로는 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고양이가 되고 싶은 개라고나 할까요?

예전에 감독님 대학 시절 체육대회 때 ‘럭구’ (럭비와 피구를 합친 운동)라는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기했었거든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은데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 ‘럭구’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과 계열을 다녀서 한 반 40명 중에 여학생이 열 명 정도였는데 그 때 여학생들은 중성이 되는 거죠. 럭구로 과별 대항을 하다보면 경기가 격해지면서 피도 나곤 했어요. 여성 팀 경기에 남학생들이 응원하면서 ‘감 놔라, 배 놔라’ 코치하며 관전하던 모습을 상상하면 좋게 말하면 재밌었고, 나쁘게 말하면 뭔가 소속감이나 중성적인 것이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 종목을 여성이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경기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었다는 반성을 하게 돼요.

<씨네 21>의 기사에서처럼 이번 영화를 여성주의 영화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첫 작품인 <땅의 여자>는 여성주의자나 여성단체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저는 역할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 역할에 맞춰서 의무나 사명감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결국 나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일부러 페미니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일상과 생활 속에서 자연히 여성 문제들과 접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럭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자연스레 <까치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까치발>을 만들기로 계획한 시점은 언제가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료조사를 시작했어요. 2015년부터는 제작 지원

을 위한 피칭이나 촬영을 했고 장애자녀 엄마들과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좀 더 집중했어요. 그 때까지만 해도 장애자녀 엄마들의 이야기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의 비중이 비슷했는데 영화를 찍다 보니까 가족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아이와 찾은 병원에서 만난 한 장애자녀 엄마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장애자녀 부모에 대해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땅의 여자>처럼 밀착해서 일상을 촬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장애자녀 부모들이 만든 팟캐스트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분들을 촬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워져서 성북에서 팟캐스트를 아예 만들게 되었죠.

자료조사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제작지원을 받기 위해 제작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분명해졌어요. 내 아이가 아팠던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감독이 영화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딸의 이야기와 저의 일상까지 찍을 수밖에 없었죠.

<까치발>은 개인으로서의 권우정과 엄마로서의 권우정이라는 두 삶이 충돌하면서 느끼는 혼란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자기 성찰과정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고비를 넘겼지만 뇌성마비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 그럼에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만 살기엔 답답한 심정 등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 시간에 대해 말해주시겠어요?

조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빨리 성장하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나라에선 여성의 산후우울증도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출산 후 빨리 복귀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누구나 그런 일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저도 출산 직전까지 일을 했고 출산 후에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가 미숙아로 나오면서 고생을 했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일로 복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한계에 부딪혀 사무실에 전화해 못하겠다고 막 울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결국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을 포기했는데 살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벽을 처음 느꼈어요.

아이의 엄마로만 있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온전히 그 시간을 즐기지 못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자책하면서 스스로 억압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술의 테두리 안에서 했던 교육이나 퍼실리테이터 등의 일에서는 백 프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영화를 빨리 만들고 싶었는데 8년의 시간이 필요했네요.

영화를 보면 권우정 감독의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권우정 감독을 더 불안하게 만든
원인인 것도 같은데요.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아이의 까치발이 아니라도 불안했을 것 같아요. 결혼으로 인해 달라진 조건과 환경에서 아이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기보다 결혼 이전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로 남고 싶었던 거죠. 결혼을 반대한 어머니하고의 틀어진 관계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자녀가 있으면 엄마가 돌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딸을 돌보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머니하고의 애착관계가 심해서 어머니한테 의존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게 너무 컸어요. 어머니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온전히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
엄마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아이들을 바라보는 태도나 자기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영화 작업이 곧 자기와의 대면의
과정이었던 것 같네요.
그 과정에서 변화된 것이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계속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투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어머니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같은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도 아이의
까치발에 대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던 점은 큰 변화는 아니어도 아이하고의
관계에서 아이를 독립적인 존재로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삶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받
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생긴 것도 같아요.

아이의 장에 정도가 경하든 중하든 간에 엄마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아이들을 바라보는 태도나 자기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영화
를 만들면서 내가 어떤 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는지, 그리고 아이하고의 관계
에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것, 불안의 몫이 아이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니라
는 것을 깨달았죠.

장애자녀 부모들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데
기억에 남는 인터뷰를 소개해주세요.

그 분의 아들이 뇌성마비고 딸의 경우와 비슷하기도 해서 더 기억나는 것 같
긴 한데요. 그 분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아들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다
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얘기를 해줘서 인상이 깊
었어요. 잘못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아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
셔서 어떤 과정을 한 번 겪었다고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새롭게
느꼈어요. 인권 강사로 활동하면서도 그 분은 아들에게 ‘하지마’, ‘하지마’,
‘발’, ‘발’을 반복해서 말했고, 그런 말에 아들은 친구들이 놀리는 것 보다
더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또 다른 분으로는 휠체어타고 인터뷰한 분이 계신데 엄마한테 듣고 싶은 말이 “괜찮아”라는 말이었다는 내용이 인상에 남아요. 영화에는 빠졌지만 제가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해 마음 속 보상 같은 것을 찾고 있을 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준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은 아이가 웃는 모습만 바라봐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아이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데 내가 또 하나의 편견으로 장애자녀 엄마에 대해 동정심을 가져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지 반성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한 편을 만드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을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영화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스토리텔러인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죠. 무엇으로 매개하느냐의 방식이 다른 것뿐인데 저한테는 그게 영화였고 내가 만든 영화가 응원 받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보고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감독보다는 기자나 평론가가 되고 싶었는데 예술영화 보면서 잘난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FM 음악방송에 나온 정성일 평론가의 영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방송에서 소개한 영화는 꼭 보고 해석하는 것을 즐겼어요. 오타쿠로 갈 수도 있었는데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선배들이 언론운동 쪽으로 많이 갔고 선배의 소개로 수강한 시민 VJ 교육 과정의 강사가 다큐 감독이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통해 사회운동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길로 오게 되었어요.

십 오년 있다 보니까 저널리즘으로서의 다큐의 힘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땅의 여자>나 <농가일가>는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자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 적박한 사회에서 외면하고 싶은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 할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게 영화 만드는 이유이기도 해요.

관객들이 영화 <까치발>을 어떻게 봐주길 기대하나요?

공감 백 프로, 위로의 에세이 영화라고 한 것처럼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영화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응원 받고 힐링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감독으로서의 욕심이에요. 뻔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게 결국 마음인데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화 만드는 게 쉽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은 것 같아요.

10년 또는 20년 후의 감독님을 상상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렵네요. 잘 그려지지 않아요. 예술 활동이나 교육활동이 당장 내년을 내다 보기 힘들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있어요. 다만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관계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답답한 여론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권우정 감독은 영화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어갔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관객으로서의 내가 권우정 감독에게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고,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은 예쁜 딸이 있어서 행복하겠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응원을 보낸다.

우리 모두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 지금보다 조금은 편하고, 행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좋은 영화 만들 어준 권우정 감독에게 감사드리고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응원한다. 올 해 여성영화제에서도 <까치발>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나는 이제부터 영화 <까치발>의 홍보대사가 되어야겠다.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발전하는 게 아니겠는가?

「동구여중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회」를 만나다

글 황현숙

여름이 올 거라고 암시라도 하듯 햇빛이 강하게 내리쬘던 6월의 어느 날,
동구여자중학교 학부모님 두 분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진이(이하 이) : 안녕하세요, 동구 여중 학부모 회장 이진이입니다.

손현숙(이하 손)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인, 2018년에 동구여중 학부모 회
장을 맡았었구요. 이름은 손현숙입니다.

작년 한 해 동구학원은 매우 ‘핫’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동구사태라고 부르는 일을 짧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 이 일은 2012년 한 교사의 공익제보로 시작됐어요. 제보를 받은 교육청
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사진 전원이 물러나게 됐죠. 이후 교육청이 파견
한 관선이사에 의해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2017년 5월, 교장 공모제를 통
해 평교사였던 오 선생님께서 동구여중 교장으로 임용되셨어요. 그런데, 물
러났던 이사진이 교육청의 이 같은 행정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



소하면서 2017년 11월 다시 복귀했고, 돌아온 이사진은 오 선생님의 교장 임용을 취소했어요. 교장임용취소 후 동구여중은 교장 없는 학사운영으로 파행을 겪었죠. 교장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왔고 우리는(동구여자중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자율성이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교장선생님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해 왔어요.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또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손 :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것에 우리 학부모회가 동구재단과 교육청에 간담회를 요청했었어요. 학생들에겐 교장선생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도 만나고 동구재단의 사무국장도 만나며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 했죠.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를 찾아 학교 정상화를 요청했어요.

동구정상화에 아이들도 참여했나요?
참여를 독려하신 편인가요?

이 : 저희 아이는 동구정상화 활동에 참여 하지 않았어요. 큰 애가 2학년, 작은 애가 1학년인데 오 선생님과 그리 친분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요.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3학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3학년 학생들이 1학년일 때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으로 만났던 친구들 보다는 친분이 더 있기도 했고, 이 상황에 대해 아는 것도 3학년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손 : 엄마의 행동을 봐 주기 바랐어요. ‘이게 바른 거니까 너도 해’가 아니라 바르다고 판단이 되면 너도 같이 동참해 줘 정도... 엄마들도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 동구 정상화에 참여한 것처럼 아이들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친구도 있고, 아예 관심 없는 친구도 있었고요. 저희 아이는 3학년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 편은 아니었어요. 헌법 소헌 할 때 글을 읽기로 한 친구가 사정이 안 되서 대신 읽게 되었는데, 그 때 한발 뒤에서 지원만 하던 입장에 있다가 앞에서 행동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열심히 돕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 1학년 친구들은 교장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좋은 경험이 없으니 참석하는데도 미온적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담임이 이 일에 관계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우리 담임선생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도 참여할 거야.” 라면서 교장 선생님 뿐 아니라 담임선생님과 교과목 선생님이 징계의 대상이 되자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재단의 비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이 당하는 피해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네요.

손 : 그렇죠, 재단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나쁜지, 나한테 뭐가 좋지 않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들에게 교장은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애뜻함이 없죠. 그러니 교장선생님을 향해서는 ‘정의가 이겨야 한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담임과 교과목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니까 ‘참을 수 없다,’ 뭐, 그런 거 같

아요.

3학년 학생들이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인해서,
동구 정상화에 적극적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가 공유 되었나요?

손 : 학생들은 뭔가 일이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엄마들에게도 자료를 공유시키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엄마들에게 먼저 자료가 공유되었고, 이후에 아이들에게 전하는 방식이 됐어요.

이 : 우리 아이들은 제가 밥상에서 남편이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게 됐어요. 우리 얘기를 듣고 반 친구들의 정보 오류를 잡아주는 역할도 했죠. 일부 아이들이 “교장선생님이 뭘 잘못해서 쫓겨났대” 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손 : 재단이 뭔가 잘못했고, 부당하게 선생님을 해고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 건 결국 엄마들이 많이 퍼뜨리고 행동한 결과를 기사 등으로 접하고서예요.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학교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손 : 그렇죠, 아이들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면 방법이 없죠. 그런데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이라. 이진이 어머니 자체분의 담임은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이셨고, 그러다 보니 현장체험 할 때 그 반 학생들은 거의 참여를 안 했죠.

재단하고 맞선다는 의미인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손 : 만약에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다면 아마 저도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학교가 대학을 보내주는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거든요. 실

“ 교육자로서의 사명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골치 아프다, 교육청이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구요.
 아이들을 도구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인상이 너무 강해서 그 날 바로
 학정모를 만들었죠.

제로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같은 재단이지만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나서지 않는 것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죠. 마케팅 고는
 대학진학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취업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 : 고등학교 부모님들은 ‘1’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손 :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오히려 재단 일에 적극적이셨죠.

이 :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머니회도 같은 학교
 학부모인 이웃의 권유로 얼떨결에 들어갔죠. 처음 사태에 대해 들었을 때는
 그냥 뭔가 문제가 있어 해임을 당했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담회에 참
 석했다가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재단 측은 교육가가 아니
 라 사업가 아니 무슨 임대업자 같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 그 날 재단 사무국장은 “교육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우리의 질문에 “재단입장에선 중학교가 필요 없다. 우리가 학교에 건물 빌
 려 주고 있는데, 국가에서 임대료 받아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
 러느냐.”고 했죠.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교육자로서의 사명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골치 아프다, 교육청

이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구요.
아이들을 도구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인상이 너무 강해서 그 날 바로 학정 모를 만들었죠. 그 자리에 있던 학부모님들이.

손 : 너무 분개를 해서 소리 지르는 어머니도 있었고, 사무국장은 왜 어머니들이 우리한테 그러냐고 또 맞서 소리 지르고 그날 분위기가 정말 웃겼어요.

아이들이 받은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손 :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주니 뭘 안 해준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중학교에 오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단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돈이 학교에 쓰여 졌을 테고 그럼 적어도 화장실은 안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 : 동구여중은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어요. 그런 학교는 서울시내에 두 곳 뿐이죠.

손 : 그런데 사실 동구뿐만 아니라 사립 중학교들은 중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리가 없었다고 해도 중학교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같은 재단인 고등학교는 달라요. 취업률이 학생유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지 투자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 : 고등학교 학부모가 ‘1’도 안 움직인 게 이해가 되요. 안 해준 게 없으니까요.

손 : 이 사태를 계기로 살펴보니 중학교는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지원이나 시설 보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육청 지원을 받으려면 재단에서도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해요. 그런데 어차피 투자한 후에는 투자한 것이 모두 재단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을 알게 되어 재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무엇보다 교장선생님이 없다는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큰 불이익이죠.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이 :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재단과 선생님이 싸우면 선생님도 좋은 기분일 수 없으니 그런 면에서도 아이들은 손해예요. 그러니 이러든 저러든 빨리 해결되길 바랄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왜 꼭 오 교장 선생님이어야 했나요?
다른 누구라도 교장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나요?

이 :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 : 그런데, 당시 교장선생님이 재단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장이 온다면 재단 쪽의 인사가 올 가능성이 크죠. 재단의 입장을 대변할 테니 그 때처럼 제대로 된 지원이나 교육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요. 똑같은 도돌이표만 반복 되는 거죠.

이 : 어떤 학부모한테 “자기네들 오빠야? 왜 이렇게 난리야,” 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혈육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저녁도 못 차리고 앉아서 열심히들 그러느냐고. 교장 자리를 놓고 적임자를 생각해보니 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 가장 최적화된 선생님이셨어요. 학교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게다가, 하다 보니 의리도 생기고, 어치구니없는 재단의 대응에 전투력 또한 상승했죠.

손 : 선생님들도 오 선생님을 원하셨어요. 그 분이 교장으로 계실 때 해오신 일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죠. 재단에서 내세운 후보는 이력만으로도 재단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인물을 찾겠다고 해놓고 그런 사람을 추천하니 재단을 믿을 수가 없었죠. 학부모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원상복귀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 : 마지막에 재단 쪽에서 오 교장선생님께 제의하고 대화를 시도할 때, 교장선생님이 많이 망설이셨어요. 본인만 복직하는 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당신이 30년간 지켜온 교육관과 맞지 않았을 테니 자존심도 상하셨겠죠. 그때 제가 좀 강하게 밀어 붙였어요, 애들 생각하셔야 한다고. 그리고 1년을 이렇게 해왔고 더 이상은 힘드니, 어서 합의점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손 : 오 선생님께서 돌아오신 게 재단에서도 일보 후퇴 한 거고 교장선생님도 약간의 자기 사명감을 내려놓으신 거죠.

이 : 세 분이 같이 하셨는데 혼자만 돌아오기 미안하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강하게 이야기 한 것이 죄송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손 : 그렇죠. 피로가 일 년 내내 누적되었죠.

동구는 지역공동체와 협의가 잘 되는 학교로 유명한데요.
그게 역으로 재단이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손 : 맞아요. 혁신교육을 한 이유도 재단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나와 교육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마을공동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한 지원 역시 아이들을 위한 혜택을 생각해서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움직이셨는데 재단은 머물러 있었네요. 선생님이 돌아오셔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손 : 학교, 특히 교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 선생님들은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라고 써서 붙이셨어요.

손 :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야 아이들을 대할 때 기분 좋게 대하게 되잖아요.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게 아이들에게 큰 혜택이죠. 그리고 학부모회도 정상화 되어서 교장선생님 사업구상에 맞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은 본관 뒤쪽 가건물을 허물고 4층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본관하고 연결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관도 가까이에 둘 수 있고 포크댄스 정도 출 수 있는 체육관도 생기는 거고 무엇보다 화장실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 작년에 구청의 협조를 받아 완공된 통학로도 교장선생님의 공이예요. 선생님은 구청에서 하는 교육행사 등에 출선해서 참여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 받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인사로 마무리를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가장 핵심은 다음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선생님이 매우 중요한 데 동구여중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역할을 잘 해주셨다. 우리 사회가 참 말 잘 듣는 사람만 원하는 거 같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들이 계속 말 안 듣는 사람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막걸리를 찾아서

- 뜬금 여행기 2

글 마르

아직 해가 넘어가기도 전, 소주 한잔 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하지만 30년지기 친구와 거기다 토요일이라면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한가? 우리에게 단 만 올 겨울 처음 먹어보는 방어를 작은 거 한 마리 먹을 지, 큰 방어를 잡아서 나눠 파는 걸 한 접시 먹을 지 아주 사소한 고민이 있을 뿐이었다.

우리의 분분한 의견은 거의 모든 생선이 그렇지만 특히 방어는 클수록 더 맛 있다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정리가 되었고, 두껍게 썰어진 방어회는 접시 위에서 빛나는 자태로 소주잔을 들게 했으며, 젓가락질 한 번에 크게 빈 자리를 만드니 아쉬움으로 또 한잔을 재촉했다.

탁자 위에 소주가 세 병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해는 지지 않았고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2차를 생각했다. 시원한 맥주 한 잔 나눌 생각에 괜찮은 호프집을 떠올리다가 방어회의 느끼함을 없애는 데는 맥주보다는 막걸리가 더 나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근처 아무 데서나 먹을 까 하다가 불현듯 지난 여름 무척 맛있게 먹었던 막걸리가 생각났다.

“우리 여름에 갔던 막걸리 집 기억나냐? 그 후에도 니가 몇 번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아, 신설동이었나? 막걸리 주전자?”

“맞아, 거기”

우리의 기억이 합쳐져 작년 여름 그 무덥던 더위도 잊을 만큼 맛있던 막걸리 집을 생각해냈고, 빠르게 택자를 정리하고 일어났다. 막걸리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 우리는 지난 여름 그 더웠던 공간 속으로 이동했다.

체력단련과 서울투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서울의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다녔던 작년 한 해, 그 날이 특히 기억나는 건 누구나 알 만한 더위로 뜨거웠던 8월 한 가운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선크림으로 무장한 나는 청계천 투어를 시작하기 위해 시청역으로 출발했는데 시청으로 향하는 마음속엔 투어에 대한 작은 설렘도 있었던 것 같다. 그 날의 코스는 청계천을 따라 신설동까지 움직이는 조금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나의 서울 투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산도 타는 데 평지쯤이야 가뿐하지 않겠냐며 자신감에 찬 친구가 합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시청에서 투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채 몇 걸음 가기도 전에 ‘평지 쯤이야’ 했던 우리의 만용을 반성했다. 8월 한 낮의 강렬한 햇빛은 40도에 가까운 폭염을 만들어 냈고, 햇빛을 머금은 바람은 마치 사막과 같은 열기를 뿜어 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따가운 햇빛을 피하기 급급하였기에, 청계천 광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스프링”도 스쳐 지나가는 길로 마무리하였고, 임시로 설치된 가판대의 매력적인 상품들도 보는 등 마는 등 스치듯 지나가며 그들이 있는 모전교 밑으로 빠르게 움직였고 그들을 찾아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 투어 행로가 바뀌었다.

햇빛에 찌그러진 얼굴과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손 부채질을 하는 친구의 모습에서 패잔병의 모습이 보였고, 내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됐다. 그들에서 그들로 이동하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 둘, 대열을 벗어 났고 우

리 역시 강행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투어를 다음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가장 생각나는 것은 시원한 맥주였다. 이것 저것 따질 것도 없이 처음 보이는 호프집에 자리를 잡았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맥주 그리고 가벼운 안주로 우리는 너무 충분했지만, 한동안의 쉼으로 방전되었던 체력을 찾았기에 한 곳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단, 맥주를 마시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동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서울투어는 맥주 투어가 되었다.

종로 2가를 시작으로 종로 3가 뒷골목에서, 종로 5가 광장시장에서 그리고 광장시장 옆에 자리한 신진시장으로 옮겨가며 때로는 시원한 맥주를, 때로는 미지근한 맥주를 시장의 안주들과 함께 먹으며 이런 여행도 나름 괜찮다고 느낄 즈음 동대문에 도착했다.

“어, 저기서도 맥주를 파네?”

신기한 마음에 들어 선 곳은 동대문 옆에 위치한 KFC였다. 김빠진 클라우드에 실망했지만, 어느 더운 날 목축임 정도로는 괜찮겠다며 맥주 투어 지도에 끼어 주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해도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든지 여름 날의 해님이는 더디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발자국 수를 남겼는데도 해는 여전히 걸려 있었고, 열기를 거둬들이지 않았다. 시간 보다 먼저 체력이 방전된 우리는 오늘의 투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무리란 잘 가라는 인사가 아니라 가볍게 한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잔을 기울이기 좋은 주변의 술집을 찾았다. 그리고 마무리 된 줄 알았던 우리 여행이 여기서 다시 시작되었다. 동묘 뒤쪽 위치한 허름한 해장국 집의 이름은 “전주 순대국 해장국”이었다. 가게 이름에 전주라는 지역명을 앞세웠어도 순대국과 해장국이 먼저인지 간판의 대부분을 차



지한 건 주 메뉴의 이름이었다.

주 메뉴가 직접 담근 막걸리와 홍어회라는 말에 우리는 막걸리 한 주전자와 홍어회 한 접시를 시켰고, 홍어회가 나오기 전에 막걸리를 먼저 잔에 따른 다음 한 모금씩 들이켰다. 저절로 ‘크으’ 소리가 날 만큼 막걸리는 맛있었고 또 시원했다. 곧이어 나온 홍어회도 막걸리 안주로 손색이 없었는데, 부른 배가 아쉬웠다.

우리 테이블로 몇 번의 발걸음을 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것은 안주를 만들어 주시는 할머니가 주인이며 연세가 여든 넷이라는 것과 홀에서 서빙을 하시는 할머니가 주인 할머니 보다 다섯 살이나 작고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 20년 넘게 함께 하셨다고 했다. 아직 먹어보지 못한 안주와 할머니들의 지난 20년 얘기를 다음으로 기약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때 너의 그 쓸데없는 열정만 아니었어도 끝까지 버텼을 걸? 아주 신났다고 그들도 무시하고 가더니 금새 진이 빠져서는, 마치 적에게 잡혔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패잔병 같은 모습이었지 아마.”

까맣게 잊어 버린 것 같았던 그 날의 기억이 성큼 다가왔다.

“별 거 아니라며, 선크림하고 선글라스면 충분하다고 물 한 병 준비 안 한 건 너 거든.”

오랜 친구는 이래서 좋았다. 별거 아닌 걸로 티격태격하면서 지난 시간과 현재를 넘나드는 즐거움으로 대강의 위치는 기억하지만 정확히 가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같은 곳을 두세 번씩 돌아 다녀도 짜증보다는 즐거운 마음이 된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기억까지도 재생시키는지 좀 전까지도 보이지 않았던 가게의 간판이 크게 다가왔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가게는 변함이 없었다. 메뉴도 그대로고 할머니 두 분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서 마치 그날 홍어회를 먹고 또 다른 안주를 시키며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막걸리 한 주전자가 먼저 도착했고, 우리는 그 시원함에 다시 ‘크아’ 소리를 내 뱉었다. 그리고 물이 좋다며 추천해 준 꼬막 안주를 시작으로 메뉴판의 거의 모든 안주를 먹은 듯 하다. 이 집의 안주는 푸짐하다기 보다 싸고 다양한 편인데, 우리야 안주 욕심에 이것 저것 다 젓가락을 대 보았지만 이 집의 주 단골들은 그저 막걸리 한 잔에 그 날의 안주 한 접시면 지친 하루를 마감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두 할머니의 티격태격하는 말 싸움 같은 대화와 옛날 이야기는 또 다른 별미 안주가 되어 주전자의 개수를 늘렸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는 어느 날 방어회를 먹다가 혹은 홍어회가 생각날 때 평일에는 7시에 문을 닫는다며 우리의 퇴근시간을 아쉬워했던 모습이 생각날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뜨거운 여름 날 불현듯이 자주 오겠다는 말에 웃으시던 할머니들의 모습이 떠 오를지도 모르겠다. 그 때는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아니 할머니들이 언제까지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막걸리를 먹으러 가야겠다. 뜬금없이 막걸리를 찾아 나섰던 그때처럼.



2019. 10. 27

igml Meer...

○○!! 결혼했다!!

글 노지혜

함께 일하던 유치원 선생님 중 한 명은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이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형부랑 결혼할 때 진짜 컷가에 종소리가 났어요?’

내가 지금 남편이 된 사람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동료 교사에게 물어본 결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었다. 그 선생님은 특유의 애교 섞인 톤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음~ 아니!’

역시... 종소리가 나는 사람들만 하는게 아니었어...! 나도 할 수 있겠다.
결혼.

남편과 만난 지 2개월째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 아직 20대 중반을 향해 쏜살같이 달리기하는 그와 20대 후반을 향해 느림보 달리기를 하던 내가 말이다.

양가 부모님과 우리 나름대로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결혼 승낙을 받고, 그렇게 우리는 남들과 조금 다른 결혼 준비를 해 보고자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결혼 준비는 정말 어른들의 세계였다. 내가 생각하던 어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관계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앞에서 나는 턱없이 부족한 어린 아이 같았다. 단지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을 뿐인데 뭐 이리 어려운 관문들이 많고, 또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단어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당차게 시작했던 나의 결혼 준비는 어느새 제 계절이 지나버린 꽃처럼 시들해졌다. 그런 나

함께 일하던 유치원 선생님 중 한 명은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이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형부랑 결혼할 때 진짜 귤가에 종소리가 났어요?’

내가 지금 남편이 된 사람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동료 교사에게 물어본 결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었다. 그 선생님은 특유의 애교 섞인 톤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음~ 아니!’

역시... 종소리가 나는 사람들만 하는게 아니었어...! 나도 할 수 있겠다.
결혼.

남편과 만난 지 2개월째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 아직 20대 중반을 향해 쏜살같이 달리기하는 그와 20대 후반을 향해 느림보 달리기를 하던 내가 말이다.

양가 부모님과 우리 나뉠대로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결혼 승낙을 받고, 그렇게 우리는 남들과 조금 다른 결혼 준비를 해 보고자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결혼 준비는 정말 어른들의 세계였다. 내가 생각하던 어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관계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앞에서 나는 턱없이 부족한 어린 아이 같았다. 단지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을 뿐인데 뭐 이리 어려운 관문들이 많고, 또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단어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당차게 시작했던 나의 결혼 준비는 어느새 제 계절이 지나버린 꽃처럼 시들해졌다. 그런 나이상 우

1. 집들이

집들이는 즐거웠다. 사람을 좋아하는 나에게 집들이만큼 즐거운 파티는 없었다. 물론 성대한 파티에는 후폭풍이 따르기 마련이지. 하지만 남편 성향에는 조금 피곤했을 것 같기도 하다. (나의 남편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좋아하지만 낮을 조금 가리는 성격이 있다.) 집들이라는 것은 살림이 미숙한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자 같은 도전이었다.

2. 가계부

우리 집에서 가계부는 애석하게도 꼼꼼하지 못한 내가 맡고 있다. 그래서 첫 달 가계부에 구멍이 났었다. 내 생각 주머니에도 구멍이 났었다. 문득 엄마가 보고 싶었다. 도대체 엄마들은 이런 가계부를 어떻게 정리하며 그렇게 20년 이상 우리를 키우셨던 걸까? 아이가 생기면 엄마를 더 존경하게 되던데, 나는 가계부만 써도 엄마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집 관련 유지비, 보험, 적금, 생활비, 용돈, 경조사비, 병원비 등등!

하... 살려주세요. 생각만 해도 머리에 불이 붙고 그동안 숫자에 관심 없었던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순 없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가계생활을 맡길 수도 없는 터. 처음에는 수기로 적는 두꺼운 노트 가계부를 샀으나, 유치원 선생님 중 먼저 결혼한 선생님이 알려주는 가계부 어플로 차근차근 써 내려갔다. 쓰고 또 쓰고, 처음 한두 달은 역시나 맞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가계부도 석 달을 넘여가니 제법 손에 익고, 고정 유지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은 비용도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보인다. 유레카~! 그리고 나름 노후라고 하는 작은 꿈수(?)들이 생겨난다. 달마다 가계부 마감을 하고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질 때, 한 달 통계를 보고 올바른 소비를 했을 때 희열을 느끼는 나는 아무래도 점점 숫자와 친해지고 있는 듯하다. 가계부 덕분에 점점 꼼꼼해지는 나라는 사람의 성장을 느낀다.

3. 조화로운 생활

막상 결혼을 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아가



려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연애할 땐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생각 한 번 다르지 않고, 동시에 같은 말을 데이트 매 순간마다 하던 천생연분 우리 둘이었는데 같이 살게 되니 이렇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구나 싶다. 어느 티비 프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 연애를 할 때 보여 주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매혹이 되어 내가 보여 주고 싶은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 역시 그랬구나 싶다. 나는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성격이고 남편은 너~무 단순한 성격이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일을 하므로 가사분담을 따로 정하지 않고, 먼저 손닿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암묵적인 약속을 했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요리를 조금 더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내가 저녁을 차려내고, 저녁을 먹은 남편은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즈음, 어느 날부터 인가 남편이 설거지를 미루고 다음날 하는 것이 아닌가! 매번 그러진 않았지만 빈도가 늘어감에 따라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인 나는 고뇌하기 시작했다. ‘이걸 말한다면 가사분담이 정해지는 게 되는 건가? 그럼 나는 앞으로 계속 저녁을 해야 하며, 남편은 계속 설거지만 신경 쓰고 저녁 차리기에는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아닐까? 괜히 이런 걸 말해서 속 좁은 아내로 보일까? 아니야? 그냥 내가 할까?’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 그렇게 고민 고민을 하며 속앓이를 하다가 어느 날 저녁 그릇들이 설거지통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민호, 여기 설거지 좀 해야겠다.’

남편의 표정이 굳는다. 그 순간 무엇인가 가슴속에 울렁하는 것이 있었지만, 처음 기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워 들었던 나는 못 본 체하고 자리를 비켰다. 그리고는 여섯 살 아이들보다도 못한 첫 말다툼을 하고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니 나는 그동안 이야기 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지시적인 어투로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런 남편은 나의 말투가 꼭 자신만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와 순간적으로 속이 상했다고 한다. 뭐 결론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이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화해를 했다. 설거지 사건 외에도 우리

에게는 몇몇의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 서로의 생활 습관과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 생길 수밖에 없는 마찰들인 것 같다.

4. 반려견

우리에게는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반려견이 생겼다. 아주 귀여운 웰시코기 ‘콧’이라는 막내다. 나의 죽기 전 이루고 싶은 꿈 중 하나가 웰시코기와 함께 사는 것이었다. 남편에게도 연애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고, 결혼해서도 자기 전에 항상 SNS에 올라오는 웰시코기 영상을 보며 그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에게 ‘콧’이라는 예쁜 강아지를 만날 기회가 생겼고 우리는 신혼과 동시에 반려견과도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너무 예쁜 콧! 콧이를 데려왔을 당시에는 남편이 잠시 일을 쉬고 있어 콧이와 함께 생활하는 날이 많았다. 나는 일이 끝나고 항상 놀아주곤 했는데 콧이가 커가면서 입질이 시작된 것이다. 초보맘(?)인 나는 인터넷에 ‘강아지 입질’, ‘강아지 입질 훈련’ 등등 이것저것 검색을 하며 콧이의 무는 습관과 어미견으로부터 채 받지 못했던 사회화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콧이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냐는 이야기에 나는 살짝 흔들렸지만 콧이도 언젠가 밖에 나가 다른 강아지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한다는 신념으로 남편에게 나의 주장을 폈다. 강아지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정답은 없었다. 그저 남편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생각해보니 꼭 아이를 두고 누구의 양육방식이 맞는가를 논하는 것 같았다. 결론은 단호할 때는 단호히, 수용할 때는 너그럽게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콧이는 현재도 아주 늠름하고 건강한 웰시코기로 잘 자라고 있고, 여러 사람의 사랑도 듬뿍 받는 건강한 개린이로 성장 중이다. 만약 콧이가 내 말만 들었다면 약간은 장난을 모르는 개로 자랐겠지만, 남편의 부드러운 성격 덕에 콧이가 지금처럼 멋지게 자란 것 같다.



5.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챌린지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다행히 이런 일들 중 첫 번째 일은 무사히 넘긴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 나머지 일들은 평생 함께 끊임없이 같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숙제이자 우리의 평생 목표일 것 같다! 나와 남편 모두 막내라 서로의 부모님으로부터 물심양면으로 감사한 보살핌을 받고 자라서인지, 가끔 의견충돌이 일어나면 서로의 막내부심이 스멀스멀 올라와 막내스러운 주장을 하곤 하는데(막내 편하라고 보다는 보통 막내들이 가진 어리광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 하다보면 재밌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다.

나는 이제 결혼한 지 200일이 넘어간다. 물론 이렇게 글로 쓰다 보니 결혼 후 200일의 시간동안 예상치 못하고 만난 검은 구름의 소나기 같은 이야기들만을 적었지만, 사실은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더 많다. 정말 기상천외한 행동으로 날 웃게 해주는 남편이 있고, 그런 남편에 지고 싶지 않아 더 기상천외한 행동을 해서 같은 웃음을 주는 나. 데이트 후에 헤어지지 않아도 돼서 안도하고, 서로 반대 방향 전철에 몸을 싣고 가는 삶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걷는 삶이 되었다. 함께 얼굴을 마주 보고 즐겁게 하루 이야기를 하고, 함께 직장 상사 흉을 보기도 하고, 오늘 밖에서 있던 이야기라든지, 콧이가 하루 동안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 그리고는 잠들기 전에 온갖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다 그렇게 오늘도 서로 고생했다며 토닥토닥 함께 잠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둘이기에 조화로운 결혼 생활쯤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미숙한 우리는 좌충우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재밌게 살 것이라고 꼭 다짐 해 본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요약하자면, 오 예!! 결혼했다!! 으악!! 결혼했다!!



큰 고민 없이 출발해서 도착한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해서 바로 올라다본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비도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예상했던 날씨지만 조금 아쉬웠다.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길, 도심으로 가는 길 사이사이, 숲 사이사이 나무로 만든 예쁜 집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자리를 위해 주변을 넓히는 것이 아닌 자연의 빈 자리에 사람들이 자리를 빌려 쓰는 듯해 보였다. 그 풍경이 마음에 들면서 잘 왔다는 뿌듯함이 들었고 그렇게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떴다.

짐을 내려놓고 숙소 근처 마트에 들어서 저녁에 먹을 간단한 안줏거리와 술

을 샀다. ‘보드카의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보드카를 손에 쥐어야지!’ 10시 이후에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어색한 이 나라. 간단히 장을 본 나와 친구는 숙소를 정리하고 ‘아르바트’ 거리로 향했다.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해가 한창이다. 우리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쾌한 식당으로 들어가서 즐겁게 식사하고 종업원들과 인스타그램 친구도 맺었다. 맛있는 식사와 직원들의 센스 넘치는 액션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와 함께 여행의 첫날을 실감했다. 맛있는 음식, 와인, 추억 골고루 잘 삼켰다.

식사 후 ‘아르바트’ 거리 앞 해안공원에 앉아 있다가 옆에 앉은 한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호기심 가득한 눈. 웃으니 다가왔다. 어색한 영어로 말을 건넨다. 한국 사람이라며, 꿈만 같이라며 나와 친구와의 만남을 꿈만 같이라며 좋아했다. 곧바로 자기의 관심사를 알려주는 소녀. 알고 보니 K-POP을 아주 좋아하고 BTS(방탄소년단) 팬이었다. 좋아하는 한국 가수 중에 내가 처음 들어보는 가수도 있었는데 너무 생소해서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가수와 결혼하는 게 소녀의 꿈이라고 했다. 생김새는 성숙해 보였는데 신발을 보니 어린이 신발처럼 보였다. 나이를 서로 맞추는 놀이를 했는데 그 소녀는 13살이었다. 15분 정도 번역기도 돌리며 대화를 나누었고 소녀는 보호자와 함께 떠나며 작별 인사를 했다.

거리에는 젊은 남녀들이 한국의 대중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거리가 마냥 낯설지만은 않았다. 익숙한 음악들, 외국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주 들려왔다. 여행을 출발하기 전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제주도 여행보다 편하게 이곳을 즐기고 있는 나를 보았다. 유난스러움이 없어서 더 즐겁게 시작한 여행이었다. 도심에서도 둘러보면 언제나 자연이 함께 하고 있고, 초고층 빌딩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곳에서도 쉽게 넓은 하늘에 풍덩 빠져 쉴 수 있었다.



밤하늘도 마음에 들었다. 넓은 밤하늘을 가리는 키 큰 건물이 없어서 까만 바탕이 가득한 하늘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조금 궁금한 게 생겼다면 여행 내내 찾아다녔던 달은 잘 보이지 않았다. 별들은 많았는데... 달은 왜 안 보였을까? 내가 찾지 못했을지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진 동네방네. 넓은 하늘과 초록이 많은 이 도시가 나는 너무 사랑스러웠다. 돈이 많았다면 부동산 중개소로 당장 달려갔을지도 모른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촌데레 같이 잘 챙겨주는 러시아 사람들. 반은 누워서 귀찮다는 듯 물건을 집어 계산하는 매장 카운터 직원과 나의 피곤한 다크 서클로 눈인사하면 웃음이 번지는 이 동네. 표정은 무뚝뚝하지만 귀찮은 듯 친절함 재미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금세 마음에 정이 들었다.

또다시 가고 싶은 블라디보스토크.
두 번째 방문일 땐 조금은 더 반갑게 그곳을 반길 것 같다.



전등사와의 인연

글 허영미

내비는 차 한 대밖에 지날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높은 곳을 향해 나를 데리고 갔다. 눈이 오면 가보겠다고, 한번 놀러 오라는 스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랬던 내가 오늘 A와 스님이 옮겨 가셨다는 달마사로 가고 있었다. 불교 신자인 그녀는 힘들 때면 절에 간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좀 쉬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녀가 좋아하는 절에 데려가고 싶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면 그러고 싶었다.

그런데 난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절을 무서워했다. 그런데, 몇 년 전, 좀 쉬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쉴 곳을 찾을 때, 지인 소개로 한 번 가보고 괜찮으면 계속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등사 템플스테이를 찾게 되었다. 삼시세끼 식사가 해결 된다는 게 나에겐 큰 매력이었다. 한 번도 아니고

혼자 식당에서 여러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쉽지 않았다. 물론 아무리 식사 해결이 잘 되어도, ‘아니면 아니었겠지만.’ 하룻밤을 지내보니 생각보다 훨씬 전등사는 편안했고 산사의 아름다움이 나를 매료시켰다.

템플스테이 숙소는 깨끗하고 정갈해서 더더욱 편안했던 것 같다. 성수기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방을 쓰는 날도 며칠 있었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았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을 위해 배려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춰 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산사에서의 일상은 남다른 경험과 함께 자연이 주는 선물을 받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비, 바람, 태양, 구름, 하늘, 별들과 함께. 맑고 화창한 여름날을 보내기도 했고, 비 오는 산사를 경험하기도 했다. 아주 고요하고 적막한, 정말 가슴이 쨍 하도록 먹먹해지는 비 오는 짙짙한 절간. 작은 불빛 하나만 비치는 어두운 산사는 빗소리로 가득했다. 며칠 비가 내려 칠흙 같은 산사의 밤풍경과 함께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비 오는 어두운 밤 산사를 거니는 기분은 뭐랄까 표현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절간 같은 절간 속에, 그 조용한 산사에서 희미한 작은 불빛과 빗소리는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빗소리에 잠이 오지 않았다. 우산을 쓰고 산사를 거닐었다.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유난히도 맑던 그날,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숙소 뒷마루에서 고개를 들고 별을 보다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누워서 볼 수 있었다. 아 서울에서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도 저 수많은 별을 볼 수 있구나.

행복했다. 처음 본 낯선 여인인 룸메이트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행복해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전등사에서 지내면서 심심하다거나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일찍 일어나게 되면 아침 공양을 하고 산사를 거닐고 점심을 먹고 또 산사를 거닐었다. 저녁이 되면 공양을 하고 아름다운 산사에 앉아 있다 걷고 싶으면 또 걸었다. 떠나면서 책을 몇권 가지고 갔었지만 책을 몇 장 보다 보면 눈이 책에 계속 머물지를 않았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나의 일상은 산사를 거니는 게 전부였다. 힘들면 앉아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전등사 주위에는 큰 소나무가 참 많다. 위풍당당하고 멋진 소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힐링이 되었다. 소나무가 많아서 전등사가 더 좋았다. 내가





머무는 동안 맑고 화창한 날이 대부분이기는 했지만, 바람소리, 빗소리. 자연과 함께 한 시간들.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설렌다. 그랬다. 내 맘이 그러했다. 먹고 자고 거닐고 보고 멍하게 무념무상의 시간들을 보냈다.

나는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다른 참가자들처럼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휴식 형 템플스테이라서 가능했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산사를 유유히 거닐며 오래도록 머무는 걸 보시고 스님들께서 하루 이틀 지나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사람들이 스님과 차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낯선 사람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첫 차담 시간은 내게는 조금 불편한 자리였다. 다른 분들이 첫 대면 하는 자리에서 맘을 열고 속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차담 시간이 조금씩 편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다.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기지 않는 꿈을 꾸는 것 같다. 살면서 생각지 못한 상황에 처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일이 가끔 생기는데 내게 있어서 전등사 템플스테이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절(전등사)과의 인연은 지금 나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숲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

- 국민대 숲 해설가 양성과정을 마치며

글 김은희

내가 숲 해설가라는 직업이 있다고 알게 된 것은 2년 전쯤이다. 지인으로부터 숲 해설가 권유를 받았을 때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산을 다니는데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가?” 그저 산은 내가 필요할 때 올라갔다 즐기다 내려오면 되는 곳 아닌가! 숲 해설 전문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와중에 시간은 흐르고 흘러 예기치 못했던 삶의 변수는 내게도 찾아왔고 곡절 많은 강폭이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의 강은 또 한 번 돌아가는 굴곡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 말 30년 가까운 직장생활을 퇴직한 후 바쁜 생활패턴 속에서 2년간 머뭇거렸던 숲 해설가 공부를 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심이 흐트러지기 전에 숲 해설가 교육 과정에 당차게 등록하게 된 것이다.

교육과정은 5개월간 110시간의 이론 수업과 30시간의 현장실습을 마치고 필기시험을 치른 후 각자 공부해서 준비한 숲 해설 실습 시연을 해야만 숲 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었다. 단순히 수업일수 만 채워서 받는 국가 자격증이 아닌 것이었다. 일주일에 3번 월, 수, 토. 결코 만만치 않는 수업일정과 짧은 기간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하기에 나태했던 생활의 시간을 고삐 잡듯 당겨야만 주어진 수업일수를 맞추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졌다

3월 첫 수업시간. 모든 수강생들이 어떤 동기로 무엇 때문에 이 생소한 교육 과정을 배우려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만만치 않는 수강료에 시간과 돈만 허비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과 두려운 마음이 익숙하게 찾아 왔었다. 숲 해설가 과정을 처음 개설하고 도입한 곳, 즉 주관하는 곳은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 한다. 지금은 전국 여러 기관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조기 퇴직자가 많아지고 안정적인 직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에 사람들은 좀 더 새롭고 자유로운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러다보니 이 과정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매년 배움의 길을 찾아오는 곳이다. 연령대는 40대도 더러 있지만 거의 50대에서 60대 중후반분들이 많으시다.

5개월 간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들은 각 대학의 산림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각계의 저명한 교수들이라고 했다. 숲 하나의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많은 과목이 필요한 사실이 의아했고 다양한 숲 분야가 새롭게 다가왔다. 삶도 그렇듯 전문가는 어느 곳이든 차고 넘쳐 난다. 거의 매 수업마다 강사진이 바뀌기에 어떤 때는 지루하다가도 어느 날은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어느 날은 여러 교수에게 수업을 받다보니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 교육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혼란스럽기도 했었다.

수업은 산림전문용어와 주변에서 자주 접하던 나무부터 혹은 전혀 생소한 나무와 식물, 산림과 토양 등 숲과 관련된 전반적 자연생태계를 망라하여 배우게 되는 데, 나무와 꽃들에 대해서만 알고 가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교육과정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심란한 마음도 들었었다. 교수들은 산림분야에 평생 뼈를 묻고 사신 분들답게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들이었고 강의 내용은 꽤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그 분야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전문용어로 나열 되는 시간이 많아서 암담한 절벽을 마주한 듯 했다.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까하는 부담감과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와 팬스레 도전했나하는 후회도 생겨났다. 수강생 중에는 숲에 대해 상당 부분 지식이 충만하신 분

도 있었고 숲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추가 자격증을 경력에 보태기 위해, 즉 스펙을 쌓으러 오신 분들도 있어서 내가 느낀 상대적 박탈감은 덧가지처럼 생겨나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말았다.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한 것이 ‘단순한 마음으로 입문한 것이 아니다’라는 오기가 생겨나서 여기서 도태되지 않고 어떻게든 이 관문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른다는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인 후 내가 숲으로 걸어 들어갈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아 조금씩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숲과 관련된 책을 읽고 외우고 또 읽고 하는 수밖에 쉬운 길을 찾을 수는 없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 후 도서관으로 쫓아가 숲과 관련된 책들을 눈에 들어오는 대로, 느낌이 가는 대로 골라 밤을 새워가며 먹어도 배가 고픈 아귀 귀신처럼 머리에 구겨 넣듯 막무가내로 입력을 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빌려온 책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었고, 아이런 책들도 있었구나하고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고, 그래서 인간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다. 의외로 책은 재미가 있었고 이 길을 오지 않았다면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을 것 같았던 책이 어느새 내 머리에 들어앉아 또 다른 지식에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기 시작했다.

숲 하면 우선은 나무가 대표적 주인공이기에 나무를 중심으로 많은 책들을 접했고 나무를 찾으러 직접 산으로 갔다. 현장 학습 장소로는 집에서 가장 가까워 자주 찾는 개운산을 선택했다. 개운산은 고려대 뒷산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동네 산이라서 초보자가 수목을 관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탐구 장소였다. 개운산에는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나무들과 꽃이 즐비하게 있었고 간혹 친절하게도 몇몇 나무에는 명패가 부착되어 도감을 보고 공부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었다. 그리고 운동을 겸한 산책을 통해 나무와 꽃들의 이름을 알아맞혀 보는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하기에는 더없는 장소이다.

그렇게 산을 걸음걸음 다니며 이름 모르는 나무 앞에 멈춰 서길 여러 번! 무

명의 야생 꽃잎 앞에 웅크려 앉아 이름을 몰라주었구나 하고 저절로 우러나 오는 미안함과 몇 십년동안 보아온 들꽃을 무심히 지나쳐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심을 갖고 자세히 챙겨보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동안 무관심 속에 사라져간 꽃과 나무들 그리고 사람들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숙연한 마음이 되었다.

그렇게 산을 오가며 이십여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 가다보니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했던가! 무언가 영킨 것이 물에 녹듯 자연스럽게 어두운 터널을 뚫고 빠져나온 듯 조금씩 숲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박혀 밝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전혀 흥미를 찾지도 느끼지도 못할 것 같던 숲이 더 알고 싶은 대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 기쁨은 벅찼고 모르는 전문 용어와 나무들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그것과 연관되는 사실을 더 찾고 싶어지는 호기심이 더 커지고 있었다. 이제껏 두려웠던 길이 견고 싶은 오솔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러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수업 중 교수들 입에서 나왔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은 온통 솜사탕처럼 나를 부풀려 신바람 속에서 학교 수업에 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외형적인 큰 틀을 만들어 주고 그 안을 채워 가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었던 것이다.

이 거대한 지구 안에 숲을 이루고 있는 숲속 생태계를 모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심 대상이 있는 곳을 향해 부지런히 쫓아가고 자주 찾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임을 알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삶이지만 자연도 끝없는 우주가 아니기에 결국 밝혀지고 알게 되어 질 테니까! 탐구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끊이지 않는 노력만이 답일 듯싶다.

숲 초보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실제로 책에서 본 꽃과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변해가면서 한눈에 그 이름을 알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계절에 따라서



이 나무가 저 나무 같고 이 꽃이 저 꽃 같은 생소한 느낌은 오랜 친구의 이름을 다른 이로 착각함에서 오는 미안함으로 다가서곤 한다. 이전에는 숲이나 자연물을 보면 그냥 이쁜 꽃이 폈네, 봄꽃들이 피었네, 단풍이 곱게 물들었구나, 라고 말했다면 이제 그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알게 되어 그에 합당한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나무가 친구처럼 더 반갑고 그것들도 나를 알고 반겨줄 것 같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라는 것을 느낀다.

숲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은 ‘그 나무와 꽃을 알기 위해서는 면밀히 몇 계절을 돌아서 보아야 하고, 똑같은 나무도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달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나무와 꽃은 단 한 번도 똑같은 모양을 가진 적이 없다’ 이다. 똑같은 사람이 없듯 자연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다보면 차가운 겨울에 잎새 하나 붙어있지 않은 나무를 보아도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관찰력이 생긴다고 하신다. 처음에 그 말은 선문답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당연하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숲 해설가 교육 양성과정 첫머리에는 나무나 꽃들의 이름, 그리고 그 내면을 자세하게 학술적으로 알아야한 다는 생각이 컸다면 2개월이 지날 즈음에는



숲에 있는 나무와 꽃 이름을 더 완벽하게 알기 위해 숲 해설가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 이 시대에 숲 해설가가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숲을 통해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아가며 숲 해설가의 중요성과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있다.

숲은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먼저 주인으로 있었다. 숲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3억 5천만 년 전 부터이다. 이에 비하여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약 200만년 전이니 숲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경이로운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어 침묵으로 살아 가기에 그 존재를 외면당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 앞에 무시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숲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숲이 주는 혜택, 숲이 주는 효과, 숲의 효능을 통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숲과 상호공생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숲 해설가의 제1덕목인 것이다. 숲 해설가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전달하는 자가 아니다.

오랫동안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고착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자아와 갈등을 해왔던 나에게 숲 해설가 교육 과정과 숲 해설가의 이미지는 내 안에 나 스스로 움아매고 있던 것들을 풀어주는 꽤도난마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앞으로 나는 숲 해설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숲에 대해 이제껏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을 가장 원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원초적이어서 더 순수하고 신비로운 그곳에서 숲을 찾아 오는 많은 사람들과 인생을 얘기하고 싶다. 내가 들려주는 얘기보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숲처럼 들여다 본다면 나는 또 다른 숲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나무와 풀을 넘어 큰 숲에서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더듬어 보고 싶다. 일상 이 지겨울 때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막상 떠나서는 빈 가슴에 삶의 노폐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응어리를 다시 내안으로 이고 들어온다. 하지만 누구나 거대한 나무 앞에 서면 마음이 내려앉아 심안으로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면 어느덧 내 옆에서 나를 토닥거려주는 나무와 숲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숲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고뇌와 아픔을 극복해주는 안식처가 되는 도량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기억(옛 것)

글 김준엽

시간을 거슬러 30여 년 전,
코 째짤이 꼬마 아이는 정릉동 온 동네 골목골목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며
말뼉과 소란을 피우던 ‘악동,’ 즉 골목대장이었다.

어디에선가 ‘부아아아앙’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하면 사자머리가 손잡이를
물고 있는 자기 집 녹슨 철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를 지르곤 했는데, 그 소
리는 작은 체구의 꼬마 아이에게서 나왔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 동네에
찌렁찌렁하게 울려 퍼지곤 했다.

“소독차 왔다!!”

골목대장의 외침이 끝나기도 무섭게 집집마다의 녹슨 대문들이 활짝 열리
며 아이들이 뛰쳐나왔다. 아마 아이들도 소독차 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디? ”

“어디쯤 왔어? ”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아이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저 밑 구부러진 길에 위
치한 파란 기와집. 그리고 이내 기와 너머로 하얀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골목대장과 아이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소독차가 눈에 들어오길 숨죽여
기다렸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 결승 경기처럼 긴장감마저 맴돌았다.

순간, 소독차가 우회전 하면서 소독차 특유의 형체가 아이들의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다. 허나 달려 나가는 아이는 없었다. 소독차의 꿈무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

그러다 드디어 소독차가 우회전을 마치며 아이들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된 순간, 아이들은 전쟁에 나간 병사들처럼 저마다의 괴성과 환호를 지르며 소독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소독차의 뒤통무늬에 달라붙어 ‘아~’ 하고 입을 벌리며 양팔 또한 좌우로 활짝 열었다. 회상하건데 당시에는 그렇게 온 몸과 몸속 내장기관 하나하나까지 연기를 마셔야만 건강해지는 줄 알았다.

소독차나 똥차, 칼같이 아저씨가 오지 않는 날에는 아이들은 심심해했다. 그래서 동네 돌산에 놀러 가거나 개미를 잡아 개미 똥구멍을 빨아먹거나 모래로 두꺼비집을 만들며 놀기도 했다.

물론 역사상 전무후무한 ‘후레쉬맨’ 놀이도 있었다. 대장 격인 한 아이가

“간다! 프리즘 후레쉬다.” 라고 외치면 나머지 아이들이

“오케이”

“오케이”

순차적으로 외치며 변신장면을 따라했다. 변신을 마친 후에는 모두 다 같이

“지구 방위대 후레쉬맨!”

이라는 초절정 명대사를 읊으며 전대물 특유의 품들을 잡았다. 이 놀이를 하기 전에는 항상 서로 그린, 블루, 옐로우, 핑크 등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겠다며 옥신각신 다투기도 했었다.

하지만 정릉동 꼬꼬마들이 가장 좋아했던 놀이는 바로 ‘얼음땡’과 ‘숨바꼭질’ 놀이였다. 어떤 날에는 얼음땡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기 위해 인수동시장까지 내려가곤 했었는데,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당시의 인수동시장은 지금 길음역에서 계성고등학교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당시 내 기억의 인수동시장의 크기는 어마어마했다. 지금도 존재하는 길음시장과 아리랑시장, 정릉시장보다 최소 두 세배 이상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수동시장과 나머지 시장들의 차이점은 크게 상가 임대형과 노점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수동시장은 시장 겸 쓰레기처리장까지 같이 수용하고 있었기에 건물보다는 노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만큼이나 아이들 놀이에 최적화 된 장소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쓰레기처리장만 해도 숨바꼭질에는 최적의 장소였는데 당시 쓰레기는 녹색으로 페인트칠을 한 리어카로 수거가 되었었다.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수거가 끝난 리어카는 쓰레기처리장과 시장의 경계를 구분시켜주는 방어선 같은 역할도 했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리어카 속으로도 곧잘 숨곤 했다. 게다가 쓰레기 처리장은 한 곳이 아니라 총 세 곳이었기 때문에 숨바꼭질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생각해보니 신기하다. 아주 미세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지금에 비해 당시의 쓰레기장 냄새는 이상하리만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사실 기억을 떠올리는 것 보다 그 시절, 불쾌한 냄새에 대한 감정만이라도 떠올라야 하는데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 세월이 오래 지나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런 냄새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노는 것이 재밌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인수동 시장에서 노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리어카에서 순대를 팔던 할머니들. 뭐가 그리 재밌는지 배고픈지도 모르

고 하루 종일 놀다보면 피죄죄한 물골이 되기 일쑤였는데 거지같아서 그랬을까? 순대를 팔던 할머니들이 나를 불러 세우는 일이 자주 있었다.

“애야, 밥은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잠깐 이리 오거라.”

할머니는 이내 리어카에서 순대를 꺼내 길게 한 토막 잘라 손에 쥐어 주시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거라.”

라고 하셨다. 비단 순대를 주시는 할머니뿐 아니라 어렸을 적 나에게 있어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허나 노느라 배가 고팠던 나에게는 그런 말보다는 내 손에 들려 있는 순대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난다.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 날 이후 골목대장인 나는 매번 동네 아이들을 죄다 이끌고 인수동 시장에서 놀곤 했다. 놀 때마다

‘오늘도 순대를 먹을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같이 놀던 아이들 중에 공짜 순대를 먹은 이는 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한참을 놀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엄마한테 혼날까봐 스스로 일찍 집에 들어가고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직접 찾으러 오는 바람에 집에 끌려가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집에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항상 시장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

있던 아이는 나밖에 없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항상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장사 마무리도 할 겸, 순대를 선뜻 내어주신 것이 아닐까 싶다.

나는 조만간 평생을 살아온 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마야 안젤루라는 흑인여성 작가의 명언처럼,

‘세상을 위해 좋은 일 하나 남겨라.’

라는 말 까지는 아니지만 엇비슷하게나마 내 고향을 위해 무언가를 하나 남기고 싶었다.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성북구의 옛 ‘정릉’ 동을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하나 하고 말이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

반대로,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일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난 대답을 구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해 주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줄 때 기쁘고, 누군가가 나란 존재를 잊어버렸을 때 서러움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된 나는 이제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옛 성북구 ‘정릉’ 동을 위해 나만큼은 기억하고 있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시 꼭 돌아오겠노라고 되뇌어본다,

기억하기 위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보잘 것 없는 몇 글자의 추억의 글일지언정 이렇게나마 글을 남기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남기는 것이 있는 만큼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것도 생겼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들이 내게 주셨던 따뜻한 마음.

공중전화가 20원, 짬뽕바와 진라면이 100원이던 시절에 내가 먹었던 길다란 순대 한 토막은 300원짜리. 어떤 날에는 500원 짜리.

할머니들 말씀처럼 나라를 위한 큰 일꾼은 되지 못하였지만 할머니들이 내게 주셨던 비싼 순대만큼이나 값진 할머니들의 마음만큼은 잘 간직하여 나 또한 내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고향이 그리운 것은
그 때의 그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추억이 그리운 것은
그 때의 그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겨에 특 아 지



photo by 김가희



photo by 허영미

photo by 김가희



photo by 허영미





photo by 허영미

아직도
토끼
경에
있다

아직 보지 못한 서울

photo by 최영미



photo by 김가희



오리
조리

요리조리
파고들다
깊이

회고록을 통해본 여성독립운동가의 삶

- 이은숙의 『서간도 시종기』*를 중심으로

글 김가희



출처 연합뉴스, 한국일보

<정릉야채> 2호에서 처음으로 다룬 ‘정릉문학’ 이야기의 그 두 번째 주제는 쉽게 정했다.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정릉과 관련 있는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았다. 성북과 관련된 인물들의 삶을 주제로 극을 만드는 극단 더듬에서 2017년에 <아나키스트의 아내>라는 뮤지컬을 만들어 이은숙 선생의 삶을 조명한 바 있고, 올 해에는 정정화, 이은숙, 조화벽 세 분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보여준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1>이라는 융복합무용극 공연도 있었다. 따라서 말년에 정릉에 사셨다는 사실 말고 이은숙 선생에 대해 아는 것 하나 없으면서도 그 분에 대해서라면 뭔가 쓸 만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서간도 시종기 -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 회고록』 이 한자로 된 옛말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도 읽을 수 있게끔 주석을 붙여 2017년에 새로이 출판되었다.

*이은숙. 『서간도 시종기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 회고록』. 일조각, 2017.

이 회고록은 출판될 때마다 제목이 바뀌었는데, 이은숙이 처음에 정한 제목은 『서간도 시종기』였다. 1975년 첫 출판 때 출판사의 제안으로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서간도 시종기』는 부제가 되어 책이 나왔다. 그 후 절판되었다가 1981년에 『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라는 제목으로 중판되었고, 2017년에 와서 현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첫 출간 때 이은숙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한 선택이겠지만 제목에서 민족운동가의 아내로 그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스펙트럼을 누구누구의 아내로 좁혀놓은 느낌이 들어 아쉽다. 두 번째 책 제목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슬프고 원통한 여인의 삶을 강조함으로써 읽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자 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온 2017년 판에서 드디어 책은 원래의 자기 제목을 찾았다. 책이 제 이름으로 출간된 지 한 해가 지난 2018년에 이은숙 선생이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게 된 사실은 독립운동가의 아내라는 위치보다 이은숙 선생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세상의 주목이 가능하게 된 시대 분위기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인 올 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눈에 띈다. 3.1절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건국훈장 및 대통령표창 등에 추서한 333명의 애국지사 중 75명이 여성이었고, 독립운동가의 가족으로, 아내로 독립을 위해 애썼지만 그 공로에 대해 사회가 돌아보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아내들 역시 독립운동가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성독립운동가의 서훈비율은 전체의 2% 남짓하다고 한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내인 이은숙(1889~1979)의 서훈이 2018년에야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가 업적이 있는 위인, 개인보다는 단체,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치우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립운동가의 아내, 딸, 며느리로서 독립운동에 가담한 여

성들의 역사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했다. 직접 단체를 만들고 무장투쟁이나 교육문화운동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살아간 수많은 여성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 가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남편과 가족을 돌보았으며 집안에 드나드는 독립운동가들의 밥을 지어 먹이고 뒷바라지를 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함께했다.

이은숙과 더불어 2018년에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의 어머니’로 불린 허은 역시 일제강점기 서로군정서 독판, 임시정부 국무령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인 이상룡의 며느리로 알려져 있다. 독립운동가의 아내, 딸, 며느리로서 신흥무관학교와 서로군정서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공로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들의 독립을 위한 지원 활동이 독립운동으로 기록되고 인정받는 일이 더 늘어어나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독립 운동 활동을 기억하는 문제는 한 사회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드러낸다. 여성들의 활동을 포함한 독립운동사야말로 과거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출발이다.

물론 여성들의 독립운동이 간접적인 지원활동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실제로 3.1 만세운동 때를 보더라도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에 발표된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상무정신을 가지고 독립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92)** 이 선언서에서는 여성들도 ‘무력’과 ‘순국’ 같은 방식으로 독립투쟁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1930년대 초 평양에서 노동운동으로 순국한 강주룡,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1930년 1월에 서울의 여학생들이 주도해 ‘여학생 만세시위’로 불린 서울의 2차 시위를 이끈 허정숙, 1940년 한국광복군이 출범하자 자진 입대한 여성광복군 오광심, 지복영, 오희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발굴하고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발굴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기록된 자료의 부족을

** 이준식,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의 재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59, 2015. 86-103.



들 수 있는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운동가들의 활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며 기록으로 남지 못했다. 게다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 운동가들이 많아서 편지나 일기 등의 기록을 직접 남긴 경우 또한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직접 쓴 회고록은 독립운동사에 대한 소중한 역사적 사료가 될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게 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김현경에 의하면 회고록을 통해 나타난 여성독립가의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독립투쟁에 직접 참여하였다. 의열투쟁에 뛰어 들고 독립전쟁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금하거나 병력을 모집했다. 둘째, 독립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가정을 보살피고 경제와 교육적 측면에서 한인사회의 유지에 힘썼다. 한인사회의 교육과 사고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독립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여성 독립운동가의 역할이었다. 또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뒷바라지하고 독립운동가와 그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이들의 몫이었다. 셋째,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나 성 인식을 보여준다. 가정 경제를 유지하거나 가족을 뒷바라지 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출신이나 계층의 성격상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살아갔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존속했음을 보여준다. (v)

***김현경. 『회고록을 활용한 다원적 관점의 여성 독립 운동 학습』.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가족 단위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인 회고록으로는 이은숙의 『서간도 시종기』, 허은의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정화의 『장강일기』 등이 있다.

이은숙은 1908년 10월 20일에 상동예배당에서 이회영과 결혼하였다. 재혼이었던 이회영은 42세로 슬하에 3남매가 있었다. 이 결혼은 이은숙의 종조(할아버지 남자형제)인 이관직의 중매로 이루어졌는데 이관직 역시 이회영과 함께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근대식 결혼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은숙은 유교식 사상과 유교적인 여성관이 몸에 밴 인물로 결혼 후 남편을 우러러볼 정도로 존경했다. 신민회의 창립 멤버였던 이회영은 잘 알려져 있듯이 독립운동을 위해 일가 6형제와 함께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은숙의 경우 결혼 이전에는 독립운동과 큰 관련 없이 살다가 결혼으로 인해 독립운동가족의 일원이 된 경우이다. 만주의 지독한 추위에 고생하며 서간도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은숙은 “귀가부인(존귀한 가문의 부인들)들이 이 같은 고생은 듣지도 못했을 것이거늘, 그러나 여필종부(아내는 남편의 뜻을 좇아야 한다는 말)의 본의를 지키는 것”(69)이라고 밝힌다. 이은숙은 독립을 향한 남편 이회영의 뜻과 의지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며 주체적으로 독립운동에 뜻을 같이한다.

모친이 돌아가신 소식을 늦게 전해 듣고 이은숙은 참례도 하고 생활비라도 마련해볼까 하여 국내로 들어오는데, 그 때 이회영 대신 중요 서류를 비밀히 간직하고 들어오게 된다. 국경을 넘으며 수색을 당해 신발 안창에 숨긴 편지를 들켜 이은숙은 신의주 경찰서까지 압송을 당한다. 이회영의 아내라는 것이 알려지자 서장까지 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서장이 이은숙의 시외삼촌을 아는 사이라 다행히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그 때 서장이 “점잖은 양반 부인이 왜 이런 나쁜 서류를 가지고 다니시오?”(135)라고 묻는데 이은숙은 “당신네들에게는 이것이 나쁘다 하지만 우리 혁명 가족에게는

으레 있는 일이지 나쁜 것이 무릅니까? ”(135)라고 대답한다. 이런 이은숙의 모습은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이라기보다 당찬 독립운동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빈궁함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강냉이 발 농사로 3남매와 일꾼, 학생들까지 도합 13명의 식구를 책임져야 해서 둘째 맥에서 보내 준 자루강냉이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다섯 째 맥과 합솔을 하기도 한다. 지금 생각하면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친척이나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신세 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 있다가 아무 것도 없이 한국에 오게 되더라도 친척들이 방을 내 주고 돌봐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나마 살 수 있었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들도 운명공동체로서 서로 돌보지 않고는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생활난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1923년, 그 해의 보리 수확을 기다리는 춘궁기에 이회영이 이을규 씨 형제분과 백정기 씨, 정화암 씨 네 분을 데리고 왔다고 이은숙은 회상한다.

그날부터 먹으며 굶으며 함께 고생하는데, 짜도미(여러 가지 콩을 섞은 밥)라 하는 쌀은 사람이 먹는 곡식을 모두 한데 섞어 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가장 하층민이 사다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가 좋아야 먹게 되는지라, 사기가 힘들며 그도 없으면 강냉이를 사다가 죽을 멀겁게 썰어 그걸로 연명하니, 내 식구는 오히려 걱정이 안 되나 노인과 사랑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미안하여 죽을 쑤는 때면 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때가 여러 번이더라.

때로는 선생들이 다소간 변통을 하여 나에게 주면서 “선생님 진지는 쌀을 사다 해드리고 우리는 짜도미밥도 좋으니 그것을 먹겠소” 하시면서 선생님 모시기를 당신네 부모님같이 시봉을 하며 지내는 것이 우당장 사후까지도 여윌하시다. (140-41)

강냉이 죽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나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고종 때 최고 갑부의 집에 양자로 들어간 이회영의 형제 중 둘

째 이석영 선생은 빈궁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고 하니 그 당시의 생활고가 어떠했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플 뿐이다.

생활비를 마련해 볼 생각으로 혼자서 국경을 넘었지만 일본의 감시가 심해서 돈을 융통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이은숙은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떨어져 지낸지 6~7년 후에 결국 중국에 있던 남편 이회영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은숙이 쓴 축문의 내용을 보면 이회영의 죽음에 대한 처의 원통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또 처 포태(임신) 4삭에 조선 와서 낳은 아이를 가군이 들으시고 규석이라 이름지어 편지를 처에게 부치실 제, 부자는 천생지친(天生之親)이라 얼마나 보고 싶어 생각하셨겠습니까.

석아가 7세가 되도록 처가 가지 못하여서 부자가 이내 상면치 못하고 가군이 별세하시게 되어, 석아로 하여금 궁천지통(窮天之痛:하늘에 사무치는 고통이나 설움)을 가슴 속에 품게 했으니, 처의 원통한 눈물이 어찌 마를 수가 있사오리까. (239)

이은숙은 고문으로 남편을 잃은 아픔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아들 이규창의 옥바라지에 가슴을 또 졸이게 된다. 이규창은 친일파를 처단한 후 체포되어 한국으로 압송되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이규창은 흑색공포단을 조직하여 조선거류민회 부회장과 고문을 역임한 바 있는 이용로를 사살하였다.

해방은 딸이 살고 있던 만주 신경에서 맞이하였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은숙은 딸 현숙을 잃고 만다. 딸을 잃은 아픔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역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북한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의용군을 만날 것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온다. 특히 고향을 서울로 하면 포살(잡아 죽임)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하거나 도중에 만난 의용군들이 남한에 가지 말고 자기네 군대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에피소드도 나온다. 그 당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점을 새삼 또 느끼며 해방이 되었다고 당연히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 또한 새롭게 다가왔다. 회고록에는 해방 후와 전쟁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록

되어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겠다.

이은숙은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 나아가 그들의 가족 및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기록해야 할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했다. 결국 이은숙은 자신의 손으로 회고록을 남기는 실천을 통해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을 알렸다.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기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1운동 100주년이라 잠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잊지 않고 꾸준히 역사를 발굴하고 새로 써야 할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손수 회고록을 남겨 역사를 기록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 이은숙의 삶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이어트, 적당한 운동과 소소한 식사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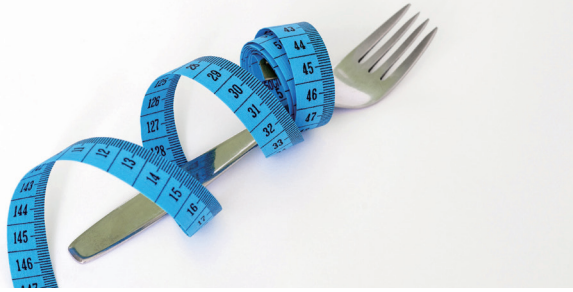
- 운동 오지라퍼 2

글 임민창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목표는 약해진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근육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찾아 보기 힘들었고, 대부분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운동 오지라퍼가 된 이후에도 제게 운동을 물어보는 분들은 살을 빼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지랴는 다이어트 해본 적 없는 필자(좀 재수 없나요?)가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오지랴 이겠지만 여기서는 다이어트의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첫 째로 해야 할 일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쉽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적당한 운동이란 말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주일에 3일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 하면 좋겠지만, 일과 가정에도 충실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임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3일이 최소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걷기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적당한’이라는 말에는 강도도 포함되고 있으니까요. 앞선 글에서 저는 1시간의 가벼운 걷기보다 5분에서 10분 동안의 빠른 달리기보다 더 낫다는 이야



기를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강도가 적당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한다고 헬스장 트레드밀(런닝머신)에서 예능프로를 보며 1시간을 걸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운동조차도 하지 않던 분이라면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다이어트라는 목표가 있으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좋아하는 음악이 들릴락 말락 할 정도의 속도로 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올리면 트레드밀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집중하게 되니까 좋아하는 노래라도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시험공부 할 때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집중하면 노래가 어느 순간 잘 안 들리게 되죠. 같은 이치입니다.

숨도 차고 땀이 살짝 날만큼 뛰었다면 이제 근육운동을 할 차례입니다. 운동을 해본 적 없으신 분들은 비용이 비싸더라도 PT수업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 자신을 위해서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혹 근육운동하면 보디빌딩 하는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항변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은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운동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까우시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으로 알려진 ‘버피(BURPEES)’를 추천합니다.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

어려우니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보고 따라 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잘 하기는 어려운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일 동안 몸풀기로 운동으로 뛰고 나서 숨을 고른 후 버피를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더 이상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다고 느낄 때)로 하신 다음 가볍게 조깅으로 마무리합니다. 운동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권하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최소 6주 동안 하고도 체중이 줄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다음 사항도 지킨 분에게만요.

다이어트를 위해 두 번째로 할 일은 소소한 식사입니다. 소소하다는 뜻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작고 대수롭지 않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먹는 식사에 대입하면 ‘조금 적은 양의 평범한 식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조건 굶거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이 많은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가 일상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은 것도, 많은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도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무의식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기존의 패턴을 바꾸기 싫은 것이죠.

굶으면 뇌는 싫어합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던 영양소가 없어지니 신호를 보내 식욕을 돋우고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굶으면 기운이 없죠. 그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민감해집니다. 아주 약간의 음식이라도 섭취하면 바로 몸에 저장을 해버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요요현상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전보다도 체중이나 체지방이 과하게 불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의 뇌가 불안감을 느끼고 이전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몸에 비축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가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의 소소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처음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 때 식사량은 땀을 흘렸다고 더 늘리지도 다이어트 하니까 더 줄이지도 말고 평소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익숙해졌을 무렵부터 평소보다 조금 덜 배부르게 양 조절을 하면 됩니다. 살짝 모자라지만 뇌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다이어트 한다고 뭔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먹던 음식들을 먹되,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멀리하는 선에서 식단조절을 하면 됩니다. 외식을 줄이고 간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하면 집에서 먹는 가정식 위주의 식사로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채소만 섭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고기라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백질과 지방도 다이어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두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너무 뻘해서 실망하신 분도 있나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에게는 저 두 가지를 잘 챙기는 것도 어려운 것이란 걸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함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입니다. 부디 다이어트를 넘어 건강하고 기능적인 몸을 만드는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와 공감

글 허광석(일산청정한의원 원장)

“사랑이란

누군가가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어떤 책에서 본 이후 개인적으로 울림이 많아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문구다. 소설, 드라마, 영화, 가요에서 많이 나오는 남녀 간의 애정만을 사랑이라고 알고 있던 때에는, 무슨 소리인가 하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한 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점점 더 크게 느끼는 말인 것 같다.

내가 자란 집은 가족 간의 대화가 거의 없었다. 예전 TV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나오는 ‘대화가 필요해’ 라는 경상도 집안의 식사 풍경이 우리 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으니.... 대구라는 지역에, 각자 집안의 장남, 장녀인 부모님과, 장남이자 장손인 나, 과묵한 남동생이 우리 가족이었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다 같이 있을 때 주로 드는 느낌은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약간의 긴장감이 항상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나는 TV에서 알콩달콩, 재잘재잘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생소했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만들고 싶은 가정의 상이 만들어 진 듯하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고등학교 때부터 내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두 가

지가 있었다, 첫 번째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두 번째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려면 서로 소통, 즉 말이 잘 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나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서로 교감하며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에는 서툴렀다.

20대 때 내가 생각한 사랑은 통속적인 죽고 못사는 사랑이었다. 내가 접했던 매체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렇게만 그리고 있었으니 당연한 거였지만, 실제로 나의 경험 또한 그만큼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오로지 사랑을 갈구하고, 서로를 움아매고, 항상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 굳게 믿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 믿음의 결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은 욕망과 저항, 애증 딱 그 정도였던 듯하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커온 환경은 설 명했듯이 대화란 그저 꼭 필요한 말만,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비로소 말하는 딱 그 정도였을 뿐, 수다를 떠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니 오히려 수다 떠는 것이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수다를 많이 떨려고 한다. 편하게 이야기할 상대가 있으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다 말하기를 권장한다.

진솔한 수다나 대화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들을 그냥 가슴에 쌓아놓고, 묵혀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감정이 열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참는다.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냄새가 지독한 쓰레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신문지로 덮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악취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의식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마음 하나하나를 잘 느끼고 말로 표현을 하면 그 감

정들을 다시 경험하며 발산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치유가 된다.

감정, 마음이란 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그저 온전히 다시 경험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해결이 되는 것처럼, 마음, 감정은 그 상황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면 저절로 사라진다. 화가 나면 화나는 감정을 느껴야 한다. 그것을 나쁜 감정이라고 여기고 의지와 생각으로 막으면 안 된다. 그냥 감정을 경험하면서 흘러가게 하면 저절로 열어지고 사라진다. 우리가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유쾌하거나 즐거웠던 감정들은 충분히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잘 쌓여있지 않는 것이다.

수업시간이나 어떤 엄격한 상황에서 웃긴 일이 있을 때, 평소보다 더 웃고 그 감정이 자꾸 떠오르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한번 제대로 웃고 나면 크게 웃지 않을 일들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 계속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주로 안 좋은 감정이나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주로 그렇다. 분노, 배신감, 억울함, 슬픔 등.

배가 고플 때, 어떤 일이 생기면 잠시 배고픔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다. 본질적인 그 배고픔을 채워야 다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감정과 마음도 동일하다. 감정적으로 상처가 되는 일이나, 감당하기에 큰 사건들은 마음이 스스로 방어를 해서 충분히 경험을 못하게 막거나, 다른 생각들로 대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점점 느끼기보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무표정해지고 무감각해진다. 무감각해져서 뉴스와 사회면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대화와 공감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사실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 사이의 일이 아닌 뉴스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

에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도 수다나 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화와 공감의 능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능력이야말로 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거나 표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느낌보다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불면증도 오고, 많이들 경험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면..., 아! 내가 뭔가 느끼고 경험해야할 감정이나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면 된다. 그리고 잠시 최근의 일을 돌이켜보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자,

그런데 감정이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대부분은 그렇다, 느낌을 생각으로 대체시키는 것에 익숙해졌고, 마치 생각하는 것이 느끼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냥 빈 종이나 핸드폰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지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적기만 해도 편해진다. 그러다 보면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그냥 적으면서 생각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밖으로 나가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주위의 사물을 관심 있게 관찰하거나 주의를 전환시킨 다음 다시 시도해보면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보통 주의 전환을 하고나면 그 힘겨운 감정이나 주제를 다시 보는 것을 꺼리는데, 주의 전환을 해서 맑은 정신으로 내 감정과 마음을 느껴보면 그 전보다 훨씬 편해진다. 그래도 잘 안되면, 편안한 상대를 찾아 대화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대화를 하고 마음을 표현하라고 해서, 그 이해관계의 당사자에게 내가 가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나오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의 배설에 지나지 않는다. 당사자와의 대화는 감정적인 격함을 어느 정도 해소한 이후에 하자.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온전한 내 것이다.’ 내가 실수를 많이 한 부분이라 염려가 되어 하는 말이다. 나는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솔직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아주 무책임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많았다. 지금도 항상 경계하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오염시키지 말자, 그랬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다. 나 혼자서 감당이 안 될 때, 그 때 주변의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도움을 받아 내 감정을 해소시키면 된다.

그냥 충분히 느끼면 해결될 것들이 생각이나 단어로 표현하면 과편화 되어 그 감정과 마음의 부분만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딸기 맛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맛을 글이나 말로 그대로 전달해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딸기 맛은 먹어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냥 경험하고 느끼고 표현하면 된다.

마음과 감정을 잘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면 흐름이 막히고 몸에 이상 신호들이 생긴다. 대표적인 것이 화병인데, 굳이 병명으로 접근하지 않고, 증상으로만 봐도 많이들 경험할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안되고, 어깨가 굳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고, 잠을 잘 못자고,,,, 대부분은 겪어봤을 증상들이다.

소화불량 중에 실제로 원인이 음식에 있는 경우보다는 스트레스일 때가 더 많다. 그럴 때 내가 최근에 신경 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정말 맘 편한 상대방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나면 많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화가 잘되기 전까지 음식은 조심해야 한다.

나는 결혼 후에 아내가 처제랑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랑 내 동생은 1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가지고, 한참 동안을 어찌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놀라웠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궁금했다. 잘 살펴보니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대화가 두 사람의 일상이었다. 특히 어린이들과 대화를 할 때 쉽게 공감하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면 대화와 공감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 듯하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에너지도 생기고. 그러니 우리 공원이나 집이나 스타벅스에서나 어디서든 내 옆에 사람과 차 한 잔하며 이야기 많이 하고 살자.

사랑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데 머 별거 있겠습니까?

2019년 지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글 고경남

1. 가구제작

내가 재활용, 업사이클, 자원순환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가구제작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도면작업을 세밀히 하고, 피자 라지 사이즈 정도 되는 원형 톱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가며 여러 작업을 했다. 작업이란 가구를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려서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한 후, 조립하여 마감하는 전 과정을 뜻한다. 이렇게 여러 작업(작품)을 하면서 그때그때 목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공방에서 접했던 원목에 대한 짙은 향과 이어지는 나뭇결이 정말 매력적이었다.

집성목과의 가격차이가 배 이상 났지만 나는 항상 원목을 선택하였다. 목재를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 동네를 오가다가 골목에 버려져 있는 목제 가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너무 아까웠다. 그 나무들이 자란 세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30년 이상 자란 수종들을 벌목해 만들어졌을 텐데 다리가 삐걱거린다고, 경첩이 빠졌다고, 디자인이 구형이라고 버려진 것들이 많았다. 나는 그때부터 버려진 원목 가구들을 우리 집 지하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버려진 가구에 관한 제보까지 받아 출동을 하였고, 출동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체해서 목재와 경첩, 손잡이, 못까지 함께 수집했다. 창고는 몇 달 되지 않아 금방 꽉 차게 되었다.

수집해 온 목재들은 대부분 아주 두껍게 코팅이 되어있었다. 집진시설이 없는 창고에서 방진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샌딩기를 들고 코팅을 갈아냈다. 그때 공방선생님께서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 하는 것도 좋지만 제2의 환경문제

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셨다. 맞는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폐목재를 재활용, 재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2의 쓰레기(환경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일까? 또 다른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수집활동을 멈추었다.

2. 업사이클

최근 몇 년 사이 버려진 것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담아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이 신조어로 떠올랐다. 나 또한 최근 몇 해 동안 목재뿐 아니라 플라스틱, 철재, 유리병, 자전거, 종이박스 등의 버려진 것들로 업사이클링하는 활동을 해왔다. 버리지 말고 새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업사이클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활동들은 어쩌면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가치를 전달하고, 인식의 전환을 일으켰던 활동이었음은 인정받고 싶다.

나 같은 개인이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미래의 후세대들에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라도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제2의 쓰레기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면서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 또는 의문이 있었다. 제2의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내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 개인 차원의 실천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플라스틱과 우유팩을 깨끗이 닦고, 씻고, 자전거 휠과 체인의 기름때를 닦아가며 가치를 부여한다고 한들 어디까지나 개인의 활동으로 그치고 만다. 얼마나 미비한 활동들인가!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성의 한계가 너무 빨리 들여다보인다. 그렇다면 또 멈추어야 하나?

우리의 이렇게 작은 활동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운동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운동?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 대체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얼마만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하는 운동, 그리고 거의 제재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생산을 멈추지 않는 이 사회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열쇠를 손에 들고 있다.

그러나 나 개인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조금 비싸더라도 유리병에 담겨진 제품을 선택하는 일,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료를 선택하는 일,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일, 차를 두고 조금 더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분리수거를 철저히 올바르게 하는 일, 한여름 실내 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는 일,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인지 살펴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일, 삶의 주체인 나 스스로가 삶의 방식을 이제는 결정해야 하는데 말이다. 이런 일들은 더 이상 환경단체, 환경운동가들만의 몫이 아니다. “지구가 아파요!”라는 캠페인이 이제는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이제야 나도 아주 조금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 한 것 같다.

3. 16세 소녀

2018년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 소녀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정치인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수개월 간 매주 금요일에 등교 거부를 하며 “인류의 멸종을 막으려면 기후변화를 멈추게 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한 영상에서 그 소녀는 이렇게 말한다.



“2018년 10월 23일 ‘몇 몇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닌 학교에 있어야 한다’ 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기후 학자가 되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기후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실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신을 차리고 변화 하는 것 입니다. 위기를 알리지 않는 모든 언론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정치인들, 당신들의 침묵은 죄악입니다. 다가오는 세대들의 미래는 당신의 어깨위에 있습니다.” 라고.

16살 중학생 소녀 그레타 툰베리(Greta Rhunberg)의 겨자씨 같은 작은 외침이 뉴스를 타고 프랑스·독일·일본 등 40여개 국가로 퍼졌다.

또한 2018년 말 폴란드 남부 카토위체(Katowice)에서 개최된 지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각국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기후변화에 대해 열변을 토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다 보스에 입성한 툰베리는 자신의 트위터(Twitter)에 동영상 메시지를 게시하고 COP24 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한 모습으로 기업과 정책 결정자를 향해 현실적이고 대담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당신들이 기후변화를 위해 즉시 일어서 준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4. 우리의 현실

너무 부끄러웠다. 중3, 16세 소녀가 저 먼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정치인들을 질타하는 발언의 영상을 보며 더 이상 고민하고 주저하면 늦을 것 같은 조바심이 생겼다.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실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운동이 되어야만 바꿀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2019년 여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출처 2019.5.13. 세계미래신문 장영권기자 기사발췌

스웨덴의 연평균 기온은 16.3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34도라는 폭염이 260년 만에 찾아오고, 오랜 가뭄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며, 만년설이 녹아내려 산의 높이가 줄어드는 등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상이변을 경험할 하게 된 16세 소녀 크레타 툰베리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지금 미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라는 눈물어린 호소와 함께 거리로 나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2위다. 전기를 물 쓰듯이 쓰고 있다는 말이다.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을까?

서울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플러그만 뽑으면, 수도꼭지만 틀면, 밸브만 돌리면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들의 생산지는 바로, 저 아래, 아래 지방에 있는 발전소들에서 공급이 된다. 생산은 없이 소비만 전체의 31%를 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원전 옆에 살면서 원전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건강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저 아래 지방에 살고 있는 아기들에게, 청년들에게, 시민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 이 글을 읽고 최소한 몇 명이라도 지구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신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작지만, 티 나지 않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2019
야책문학

연극

이봄(초등5)

친구 차례는 깔깔깔깔
내 차례는 두근두근
시작하면 쿵쿵쿵쿵
무대 조명은 켜켜
땀은 질끔질끔
손은 부들부들
대사는 머리에서 속속속
눈은 큐사인을 힐끔힐끔



연날리기

이혜성

가늘지만 질기게 엮인 실
높이 날 수 있게 오래오래 감아주자
꿈을 담아 애정을 담아
실이 겹겹이 쌓여 두꺼워지면
이제 높이 날려보자

우리 집 지붕보다 높이
앞마당 소나무보다 높이
우리 학교보다 높이
어느새 내 온몸은 저 하늘 향해 연을 향해

높은 곳에서 보는 우리 동네는 어떠냐
거기선 내가 작게 보이겠다
너의 꼬리보다 작게 보이겠다
우리는 오늘도 신나게 동네 산책을 한다

바람 부는 날
너랑 나랑 또 놀러 나가자
오늘도 높이 오른 너는 신이 나 춤을 추고
나는 너를 보면서 달려
나도 신나게 달려

어느 날 가지가 복잡한 나무에 네가 걸려
뽀짝달짝 못할 때
나는 너를 불러보지만
너는 계속 먼 곳만 바라봐

어느새 밑에 세상은 보지 못하고
멀리 날고 싶은 너를 위해
슬프지만 질기고 긴 실을 끊어준다
그렇게 연을 놓아준다

새

이밥

1. 새기

아주 오래 전의 일이었다. 혹자는 그 때가 쥐라기였다 하고 또 다른 혹자는 백악기였다고도 했다. 어떤 가인은 그 시절엔 공룡이 헤엄치고 익룡이 날아다녔다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아무튼 아주 오래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실관계 하난 명확히 한 후 이야기를 진행해야겠다. 위에 언급된 가인의 노래완 달리 사실 그 시절엔 익룡이 날아다니고 공룡이 헤엄치질 않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시절엔 익룡도 없었고 공룡도 없었다. 위에 언급된 가인의 노래완 달리, 사실 그 시절엔 온 세상이 새로 가득했었다. 지구에만 새들이 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우주 전체가 새의 시대였다. 지구의 나이로는 백악기와 쥐라기 쯤이었다.

2. 오작교와 불새

얼마나 새가 많았기에 온 세상이 새로 가득 차 있었다고 나는 말하는 것일까? 내 기억이 맞는다면 당시 새의 수는 우주 전체의 모든 별과 행성의 수보다 많았다. 왜냐하면 어떤 별이나 행성을 가더라도 새들이 날아다녔기 때문이다. 날아만 다닌 것이 아니었다. 물이 있는 행성에선 헤엄을 치고 가스로만 가득 찬 행성에선 가스로 팩을 즐겼으며 심지어 불이 펄펄 튀는 별에도 새들이 날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나 그 수가 많았던지 해마다 칠월칠석엔 까마귀와 까치들이 견우와 직녀가 - 견우와 직녀 또한 본랜 새였으나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새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비행금지'였다 - 만날 수 있도록 그 멀고도 먼 견우성과 직

*별, 해, 태양, 항성은 같은 개념으로 썼다. 다만 '별'은 행성을 지칭할 때에도 문맥에 따라 가끔 사용했다.

녀성을 잇는 다리를 났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수만 많은 것이 아니었다. 새들에게 금지된 장소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이 별 저 별 온 우주를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다. 지구의 바닷속을 유영하고 바람에 몸을 실어 지구의 이 구석 저 구석을 다니다가도 어느 날 문득 목성으로 날아가 가스팩**을 즐기고 어느 날엔 태양 속으로 날아들어 태양을 관통한 후 빠져나오곤 했다. 그 행위는 아마도 지금의 인간들이 즐기는 불가마 사우나와 비슷한 놀이였을 것인데, 당시 태양*** 속을 드나들던 새들의 모습은 각각의 태양주변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우주의 호흡주기에 따라 가끔 그 흔적들이 빛을 반사하곤 한다. 나중에 지구에 출몰한 포유류 인간들 중 그 반사광을 목격한 이들은 자신들이 본 그 번쩍거리는 새의 형상을 불새라 부르곤 했다. 태양을 관통하는 불가마 사우나에도 싫증이 나면 새들은 우리 은하도 벗어나 안드로메다 등 우주 곳곳의 다른 은하들로 날아가고 또 그런 은하들에서도 새들이 우리 은하로 날아왔다.

3. 호흡

그런 새들과 함께 나 또한 이 은하 저 은하 돌아다니며 놀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를 관통한 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며 반짝거리는 불똥들을 바라보며 잠시 황홀경에 빠져들었는데 ... 아! 저것, 아니 저 새는 무엇이더냐? 내 몸의 두 배는 더 길어 보이는 황**** 하나가 방금 내가 빠져나온 해를 삼키려드는 게 아닌가? 아, 저것만은, 아, 저것만은 막아야한다. 해를 삼키지 않는 것. 그 것은 온 우주에 퍼져있는 새들의 생존과 우주의 질서를 잡아주는 불문율이 아니던가? 해를 관통하며 몸의 외부가 뜨겁게 달구어진 새들은 모두 몸 안으로는 지독한 한기가 올라오기에 - 내가

**가스팩: 사실 얼핏 보기에 목성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그 모습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이 대부분 가스들이라 그 속에서 날갯짓을 하다보면 끈적거림과 톡 쏘는 탄산의 상큼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당시 목성은 우주 전체에서 새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행락지였다. 가스팩은 지금의 인간들이 즐기는 머드팩 같은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목성은 지금의 충남 보령쯤 되는 셈이다,

***꼭 우리 태양계에만 있는 태양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주 곳곳에서 자기 스스로 몸을 태워 빛을 발하는 진짜 '별'들을 지칭함.

****봉황의 암컷을 말한다. 봉황의 수컷은 봉이라 한다.

방금 전 빠져든 황홀경도 그 지독한 온도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해를 집어 삼켜 몸 안을 데우고자 하는 욕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히 올라온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었으나 우주가 유지되고 새의 세상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해를 삼키는 행위만은 삼가야 하는 것이다.

해의 빛과 열을 오로지 자기 몸으로만 가져가려는 욕구와 행위. 그 빛과 열을 독점하려는 욕구와 행위 때문에 우주는 그 얼마나 긴 혼돈의 세월을 겪었는가 말이다. 빅뱅 이후의 우주는 그 빛과 열이 온 우주로 퍼지고 있기에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빛과 열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그것은 우주 전체의 것이며 우주 구성원 모두가 고르게 누려야 할 우주 전체의 보배인 것이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해를 삼키려는 황을 향해 돌진했다. 황과 충돌 직전 난 깨닫는다. 아, 너. 무. 크. 다. 몸으로 싸울 상대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를 삼키게 두어서도 안 될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전혀 없었던 나는, 이미 그 새에게 몸이 너무 가까이 밀착돼있던 나는, 그저 그 큰새의 품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해를 삼키기 위해 부리를 크게 벌리는 데만 온 힘을 집중하던 그 새는 그 때서야 나의 기척을 느끼곤 잠시 숨을 고른다. 우주의 별들과 행성들과 먼지들 속에 달라 붙어 있던 산소의 분자들이 입자형태로 새의 폐로 들어갔다가 입자형태의 탄소분자들이 우주의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호흡. 아! 나도 이런 식으로 숨을 쉬는 게로구나. 큰새도 자신의 몸에 밀착돼있는 나의 호흡을 느끼고 있는지, 어느새 그이의 날숨은 나의 들숨이 되고 나의 들숨은 그의 날숨이 된다. 호흡. 큰새와 나는 이제 서로의 호흡만을 느낀다. 고르게 쉬어지는 숨을 보아 큰새는 부리를 닫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해를 살렸다는 안도감이 밀려들며 나의 숨은 더욱 편안해진다. 큰새의 숨도...

호흡이 편안해지니 눈을 뜨지 않아도 주변의 모든 것이 보이고 큰새의 품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내 몸은 느낀다. 이제껏 난 아직 이토록 아름다운 우주를 보거나 느낀 적이 없었다. 우주의 모든 해들이 우리 둘만을 비

추듯 환히 웃음 짓고 우주의 모든 암흑 물질들도 우리를 편안히 감싸 안는다. 지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당시 우리를 비추던 우주의 모든 햇살은 마치 먼 길 떠났다 돌아오는 나그네를 맞는 공항의 반짝이는 활주로 조명처럼 안도감을 주었고, 당시 우리를 감싸던 우주의 모든 암흑물질들은 한껏 멋을 낸 어느 다방 마담의 ‘비로도’ 처럼 황홀했다. 우리 둘은 그 안도감과 황홀경 속으로 끝없이, 끝없이 빠져 들어갔다.

독자들을 위해 굳이 첨언을 하자면, 당시 어떤 새도 어떤 해보다 크지 않았다. 다만 당시의 해들도 당연히 대부분 가스로 이뤄져 있어서 몸집이 큰 새들은 해의 흡입이 가능했다. 삼킨다는 말을 흡입으로 이해하면 된다.

4. 지구

우리가 황홀경에 빠져있던 시간은 무척이나 길었다. 거진 1억5천만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기지개를 켜는데.... 아! 우리가 호흡을 나누는 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눈을 찢고 보아도 우리 둘 말고는 어느 곳에도 새가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우주에 떠있거나 우주를 유영하는 새는 단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많던 새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우리가 호흡을 나누던 태양계부터 조사해보기로 마음을 먹는다. 태양. 그 속 구석구석 어느 곳을 뒤져봐도 새는 없다. 수성. 금성도 모두 마찬가지. 혹시 이 태양계에선 어떤 새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조바심으로 바짝 말라드는 마음을 달래며 지구로 날아들었는데, 아! 새들이 날아다닌다! 그런데 모두 작은 새들뿐이다. 우리가 호흡을 나누기 전에는 이 지구에도 우리 둘만큼 큰 새들이 날고 헤엄쳤는데, 그 큰 새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까치야 이 지구에는 너희처럼 모두 작은 새들 뿐이로구나. 우리처럼 큰 새들은 모두 어디에 있니? 지구에서 처음으로 만난 새는 까치였다. 먼 옛날에도 까치는 먼 곳에서 찾아오는 이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고 누구보다 먼저

소리를 지르곤 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셨기에 아직도 이렇게 큰 몸을 갖고 계시나이까아악 까아악. 지금 세상에도 이런 큰 몸을 가진 새가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아까아악. 까치는 신기한 듯 연신 우리 몸 주변을 휘휘 돌며 물어댄다.

까치야, 사실 우리는 1억5천만년 동안이나 우리 둘만의 황홀한 세상에 잠들었다가 이제야 깨어났단다. 그 황홀경은 어찌나 깊었던지 우린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까치야 네가 안다면 꼭 대답해주어라. 큰 새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이냐? 아니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이까 큰 새들이시여까아악? 님들께서 빠져들었던 그 황홀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주 전체의 지구화를 전혀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아악. 까치에게 우리 둘이 나누었던 밀착된 호흡과 그로부터 빠져 들어간 황홀경을 얘기해봤자 어쩐지 미친 새 소리나 들을 게 뻔한지라 우리는 그저 까치의 다음 얘기가 기다리는데...

5. 지구화 - 까치가 들려준 이야기

우리 둘이 황홀경을 나누던 지난 1억5천만 년 동안 우주에는 지구화가 일어났다. 1억5천만 년 전 우주에는 약 10조개 정도의 지구 같은 행성들 - 대지와 물과 공기의 밸런스가 적당한 행성들 - 이 있었는데 당시 그 행성들은 새들에겐 다른 별들에 비해 특별할 것 없는 별들이었을 뿐이었다. 태양에서 볼가마 사우나를 즐기고 목성 같은 가스행성에선 가스팩을 즐기듯 지구같은 행성에선 형형색색 다채로운 풍광을 즐기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지겨워지면 또 다른 별이나 행성으로 날아가면 그만이었으나...

어느 세상에나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고 구시대로 회귀하려는 집단은 있는 법이다. 70억년 전 일어난 빅뱅은 구시대의 혼돈과 무질서를 일거에 깨트리며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켰다. 이 새로운 우주에서는 별들과 행성들과 먼지들과 그리고 암흑물질들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생성과 소멸을 자연스레 이루어내었고 새들 또한 자신들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인식하지 않은 채

그들의 현재만을 즐기다가 어느 날 문득 우주의 암흑으로 또는 먼지로 분해 되는 삶을 사는 것 뿐이었다. 먼지나 암흑물질이 되었다가 언젠간 행성이 되고 별이 되고 새가 되고 그런 후 또 소멸되고 생성되는 그런 질서였다. 이러한 질서 하에서는 별이 행성보다, 행성이 먼지보다, 먼지가 암흑보다 더 우월하다 느낄 필요도 없으며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새를 부러워하는 무생물들도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또 다른 모든 존재의 생성원인이었고 소멸의 대상이 었기 때문이다. 빅뱅이라는 우주의 혁명이 추구한 것은 대략 그런 질서였고 70억년 이상 그러한 우주가 자연스레 팽창하고 있었으나, 혼돈과 무질서의 우주에 너무나 익숙했던 어떤 입자들 또한 새로운 우주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새로운 우주를 구성하는 별들과 행성들과 먼지들과 암흑물질들 속에도 이런 입자들이 조금이나마 섞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입자들이 조금 혹은 많이 섞였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즉, 새로운 우주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주 전체적 관점에서선 조화와 평화라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였으나 각자의 내면에는 혼돈시대의 욕망들이 조금씩이나마 들어있었다. 다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빅뱅에 적극 참여하거나 동조했던 입자들이 우주 구성원들 각자의 몸속에서 혼돈의 욕망들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새들의 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모든 새들의 몸속에도 혼돈의 입자들이 아예 섞이지 않을 순 없는 일이었다. 새에 따라 그런 입자들이 많거나 적게 섞이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빅뱅 이전의 우주에서는 누구나 빛과 열을 독점하려했었다. 빛과 열을 발하는 별이 나타나면 어느새 모든 물질들이 달려들어 그 해를 삼켜버리려 했다. 모두들 그 별 주위로 모여들어 이전투구를 벌이곤 했었다. 빅뱅 이후 새로운 우주에선 어느 누구도 서로를 삼킬 수 없었으나 빛과 열을 삼키고 싶다는 혼돈우주의 성질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어느 몸이던 어느 사회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후에도 반동의 입자들을 완전히 없앨 순 없는 것이다. 개별 입자들 또한 소립자들의 조합이고 소립자들의 입장에서선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내에선 신구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새 질서에서도 구질서를 욕망하는 입자들을 완벽히 없앨 순 없다. 어느 한쪽의 완벽한 제거는 결국 전체의 제거를 의미할 뿐이다. 다만 결국엔 공멸을 불러올 이기적 욕구 추구 입자들을 단속하며 끝없이 그들에게 공존의 가치를 이입시키는 것, 그것만이 공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새로운 우주는 다행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속의 힘과 귀화의 노력은 언제나 같은 크기로 유지될 순 없는 법이다. 힘과 노력이 느슨해지는 때도 반드시 있다. 나와 사랑을 나눈 후 나의 동행이 된 큰새가 해를 삼키려 했던 것도 일시적으로 그 몸 안에 들어 있던 이기적 욕구 추구 입자들이 발한 탓이었다.

70억 년의 시간은 우주의 시간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며 그 탐욕의 입자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새들이 나타났고 어느 순간 그 새들은 제법 큰 무리를 이루었다. 물론 그 새들은 온 우주의 해들을 삼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은 우주 전체의 질서와 한판 붙기엔 아직 부족했다. 해의 빛과 열을 탐했으나 우주의 질서에 맞장 뜰 수 없었던 그들이 모여든 장소가 지구형 행성들이었다. 왜인고 하니, 지구형 행성들은 그들의 항성인 해에서 쏟아지는 빛과 열들을 상당히 많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형 행성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엔 해의 에너지가 담겨있었다. 모든 풀들과 나뭇잎들엔 언제나 해가 그득그득 담긴다. 탐욕의 새들이 그곳으로 모여든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치자.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새들이 그곳에서 자라는 풀들과 나무들의 성장과 소멸에 맞춰 태양의 빛과 열을 흡입했다라면 우주 전체의 큰 새들이 사라지는 대사건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각각의 지구들로 모여든 새들은 여전히 우주를 날아다니던 다른 새들이 필요했다. 풀과 나무들이 자라려면, 더 많은 풀과 나무들이 생키려면, 더 많은 흙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먼저 온 새들은 끝없이 우주의 새들을 유혹했다. 빛과 열을 흡입할 수 있다고, 첫 새를 유혹하기 힘들었을 뿐 가면 갈수록 지구형 행성들에는 새들이 모

여들었다. 나중에는 유혹도 필요 없었다. 탐욕의 경계는 한번 무너지면 끝나는 법이다. 물론 당시의 우주에서도 그랬다. 탐욕이 환상을 만들어 내는 것도 지금과 마찬가지로였다. 즉, 지구로 모여드는 모든 새들에겐 환상이 있었다. 내가 반드시 다른 모든 새들을 제치고 모든 풀과 나무를 먹어치우리라. 내 밑에 쓰러진 다른 모든 새들을 땅에 묻고 더 많은 풀과 나무를 키우리라. 그 풀과 나무마다 태양의 빛과 열을 그득그득 채워 놓으리라. 그리곤 그들은 새로서의 정체성마저 버리게 된다. 해의 빛과 열만이 오로지 존재 이유가 된 그들은 우주로 날아갈 필요가 없어졌고 그에 따라 우주에 대한 관심도 아예 사라졌다. 즉, 그들은 그들에게 있던 모든 깃털들을 뽑아 땅에 묻기 시작했다. 해의 빛과 열만 바랐던 그들은 그들의 깃털들마저 거름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깃털을 스스로 뽑아버린 새들의 모습은 스스로 괴상했다. 지금의 사람들이 괴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다. 아마도 후대에 나타난 사람들이 파충류라고 부르는 공룡들은 그 스스로 깃털들을 뽑아버린 그 새들일 것이다. 사실은 조류인데 말이다.

오로지 빛과 열만 원하다 공룡이 돼버린 새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또한 보다 많은 풀과 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반드시 저놈을 죽여서 거름으로 만들리라. 나만의 빛과 열을 담아낼 풀과 나무를 위해 쓰리라. 너 또한 이미 풀과 나무를 먹고 성장했기에 네 몸 자체에도 빛과 열이 그득하리라. 나 네 몸속의 빛과 열도 모두 먹어주리라,

그런 현상이 1억5천만 년 전 온 우주에서 벌어졌답니다까아악. 그걸 지금은 모두 우주의 지구화라 부른답니다까아악. 그 아름답던 새들이 민몸뚱아리 공룡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먹었다니.... 그 광대한 우주를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새들이 스스로 날개를 잃어버리고 우주 전체로 보면 먼지보다 작은 지구 안에 스스로 갇혀버렸다니. 내 비록 내 정확한 나이는 모르나 내 사는 동안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나 싶어 까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내 동행 황이 나를 그이의 날개로 품어준다. 너무나도 큰 슬픔 때문에 또다시 황의 품속에서 호흡을 나누고픈 욕구가 크게 들었으

나, 이 괴로운 현실을 놔두고 연인의 품속에 안겨 또 다른 1억5천만 년을 보낼 순 없다. 안락함이 부르는 욕구를 누르며 겨우겨우 까치에게 그 뒷얘기를 청한다. 애, 작은 새 까치야 그렇다면 그 공룡들이라도 이 지구에 있어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내 눈엔 깃털을 뽑아버렸다는 그 큰새들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나? 도대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이니? 너 또한 몸은 작으나 새는 새인데 어찌 너처럼 작은 새들은 여전히 새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니? 큰 새이시여, 님께서는 정말로 그 황홀경인지 뭔지 하는 깊은 잠에 드셨던 것이 분명하군요까아악! 어떻게 그 긴 시간동안 벌여졌던 일들을 하 나도 모른 채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나이까아악? 그 황홀경이란 게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만요까아악! 허 요녀석 말투 좀 보게. 까치의 말투는 어느새 우리 둘을 바보 취급하듯 놀리는 투가 되어간다. 하기가 그도 그럴 것이 1억5천만 년의 그 긴 세월 우주가 망가지고 자신의 종족들이 모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 한 채 황의 품안에서만 홀로 안락하였으니 까치의 핀잔을 고깝게만 들을 순 없는 일이다. 온 우주를 훨훨 날아다니던 내가 그깟 말투 하나에 고까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우주를 품었던 호연지기를 발동하여 마음을 다지며 까치의 얘기를 듣는다.

<다음 호에 계속>

서프러제트(Suffragette*)와의 대화

김해경



이 글은 영화 <서프러제트>의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면서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항거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이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시대 여성들이 처해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 본 후, 내가 영화 속 다양한 인물들을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한 가상의 대화를 상상해 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여성들의 피의 항거

주인공 모드 와츠는 세탁공장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고 기르던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는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다. 7살 때 세탁공장에서 시간제로 일했으며, 12살에 정규직이 됐고, 17살에는 세탁소 팀장을 맡았으며, 20살에 감독이 됐다. 현재는 6살가량의 남자 아이를 키우는 24살의 엄마이다.

어느 날 세탁공장 동료들이 수정법안이 통과되면 투표권에 변화가 생긴다

*Suffragette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suffrage에 여성을 뜻하는 접미사 -ette를 붙인 말로 20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여성 참정권 운동, 운동가들을 뜻하는 말이다. 원래는 서프러제트를 이끈 시민운동가 에밀린 팅크허스트와 1903년 그녀가 결성한 여성사회정치연합을 <데일리 메일>에서 경멸로 표현한 말이었다.

[출처] 받은 것이 아닌 이뤄낸 참정권에 대하여 : 영화 서프러제트(suffragette)

|작성자 전복선관위

며 자신이 발언하기로 한 곳에 참여해 달라고 한다. 모드는 그곳에 참석하기만 한다고 했다가 동료가 다치는 바람에 발언을 하게 된다. 모드는 다림질을 아주 잘하고 손기술도 뛰어나고 남자들보다 3분의 1가량 더 일을 하지만 1주일에 13실링을 받는다. 반면 남자들은 1주일에 19실링을 받는다고 발언을 한다.

발언 이후 여성 참정권 법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강제해산당하고 경찰들의 폭력을 당했다. 또한 세탁공장에서 해고당하고 남편으로부터 쫓겨나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남편은 아들을 다른 집에 입양 보낸다. 영화 <서프러제트>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평범한 여성들이 이에 분노하여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 피의 항거로 맞서 싸우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다.

1.3cm 한 칸 위의 시민 권력을 찾기 위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영국에서조차 여성은 민주주의 대상에서 소외됐다.

영화 <서프러제트>의 말미에 1913년 에밀리 와일딩 데이비슨이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며 국왕의 말 앞으로 뛰어들었다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건이 나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 여성의 참정권이 이슈화 되었고 영국에서 마침내 1918년 30세 이상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인정되었고 1925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가 인정됐으며, 1928년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여성 참정권은 1893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인정되었다. 1906년 유럽 최초로 핀란드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됐고 이후 노르웨이, 덴마크, 소비에트연방, 캐나다 등지에서도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했다. 미국은 1920년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고 참고로 미국 흑인 남성들에게는 1870년 참정권

이 인정됐다. 최근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다.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

영화 <서프러제트>는 여성들의 참정권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영화 속 인물들을 통해 말해 준다.

첫째, 여성의 재산권 문제이다. 영화에서 호튼 부인도 시위를 해서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하지만 남편이 와서 보석금으로 2파운드를 내고 집으로 돌아간다. 호튼 부인이 남편에게 다른 여성들의 보석금도 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한다.

호튼 부인이 남아 있는 파운드가 실제로는 자기 돈이니 같이 잡혀 온 다른 여성들에게도 보석금을 내주라고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돈의 법적 소유자는 남편이라고 말한다. 보석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하는 모드는 감옥 생활을 한다.

여성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은 1813년 출간된 제인 오스틴(Jane Austen, 영국 작가 1775~1817)의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에서도 나온다.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 집안은 남자 형제는 없고 다섯 자매만 있다. 그 당시 영국의 '상속법'에서 여자는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베넷 부인은 딸들을 부유층 집안에 시집보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둘째, 여자 아동노동 문제이다. 12살 가량의 매기는 모드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세탁공장에서 일을 한다. 뜨거운 다림질로 인해 화상의 위험이 있고 공장안에는 가스가 가득해서 두통과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매기와 같은 아이들의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여성차별이다. 모드는 남자들보다 3분의 1가량 더 일을 해도 1주일에

13실링을 받지만 남자들은 1주일에 19실링을 받는다. 또한 퇴근 후에는 가사일과 양육을 도맡아 한다. 영화 속 엘렌 부인은 의사가 꿈이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반대해서 그 꿈이 좌절된다. 대신 약국을 하는 남편을 만나 환자를 진찰하는 일을 한다.

버지니아 울프(Adeline Virginia Woolf, 영국 작가, 1882~1941)는 아버지처럼 케임브리지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했다. 1948년이 되어서야 케임브리지대는 여학생 입학を 받아들인다. 비록 울프는 케임브리지대에서 공부하지 못했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읽고 문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출판 일을 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

넷째,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모드의 세탁공장 동료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다. 또한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특히 감옥에서 단식을 하는 모드에게 교도관들이 강제적으로 우유를 주입한다.

또한 미성년자인 매기는 세탁공장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다. 모드 또한 어릴 적에 사장으로 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 모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세탁공장에서 매기를 데리고 나와서 호튼 부인에게 매기가 잘 하는 일들을 알려주고 호튼 부인 집에서 매기가 일할 수 있게 한다.

1912년 영국 사회는 출산, 양육, 가사 일은 모두 여성의 몫이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의 노동도 해야 했다. 더욱이 자식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노동과 교육, 재산권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했다.

만일 영화 속 인물들을 만난다면...

나 : 건물의 유리창을 깨거나 우체통을 폭파하는 등 에밀리 와일딩 데이비스 사건과 같은 투쟁 방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밀리 팅크허스트* : 참정권을 위해 1천 명 이상의 여성들이 감옥에 갔으며위의 투쟁방식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나 : 모드가 재판정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 해산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오히려 모드를 비롯한 서프러제트에게 언론과 사회에 주목받기 위해 폭발력 있는 사건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엘렌 부인 : 명석한 두뇌와 의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드 : 어릴 적부터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세탁공장에서 성추행을 당하며, 언제 가스중독으로 병에 걸릴지 모르고 그나마 그 일을 언제 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노동자입니다. 단지 제 처지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오히려 가정, 이웃, 공장에서 비난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아들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만약 제게 딸이 있었다면 제 딸도 저와 같은 인생을 똑같이 살아야 했을 겁니다.

*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끈 시민운동가. 1903년에 여성사회정치연맹(WSPU)을 설립해 어느 정당에도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며 '서프러제트'라는 명칭을 얻었다. 팅크허스트가 진두지휘한 서프러제트는 가두시위와 날 선 연설, 유리창 깨기, 방화, 단식 투쟁을 서슴지 않았고 구타, 체포, 투옥, 고문에도 움츠리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918년 30세 이상의 영국 여성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1928년 팅크허스트 사망 직후, 영국 정부는 투표권을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확대했다. 출처 :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우리시대 여성을 만든 에밀리 팅크 허스트 자서전 중에서

나 : 그래서 매기를 보고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세탁공장에서 데리고 나와 호튼부인에게 데리고 간 것은 너무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을 겁니다. 제가 1913년 영국에 있었다면 아마도 감옥에서 나온 서프러제트들을 케어 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조합에서 서프러제트를 위해서 임시 거처와 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모드 직장 동료(매기) : 저는 임신을 한 상태여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드 :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이해해 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 : 저도 모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받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기를 바라지만 여성이 아니면 여성의 고통을 알지 못 해서 여전히 조용히 참고 살라고 합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어쨌든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프러제트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울 것입니다.

아주경제신문(2019.7.1.)에 따르면 여성 월 평균 임금은 지난 2013년 203만3000원, 2014년 209만2000원 2015년 211만9000원 등으로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남성 월 평균 임금(356만2000원)에 비하면 여성 임금은 68.8%에 불과하다.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 고위직의 여성 비율, 성차별적인 언어, 문화 등에서 아직도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영화 <서프러제트>의 모드와 엘렌부인, 에밀린 팡크허스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여성들의 함성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십대들의 마음사전*

오디세이학교(민들레 친구들)

표정과 눈빛 (유윤경)

표정과 눈빛은 한 곳 차이다. 둘 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지만 표정 안에 눈빛이라는 도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정은 눈, 코, 입, 얼굴 주름 등을 이용한다. 이 안에 눈빛도 들어간다. 하지만 표정은 의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나의 감정과 다르게 속일 수 있다. 그리고 표정은 얼굴의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제스처이다. 반면, 눈빛은 숨길 수 없다. 한 인터넷에서 본 것인데 ‘진짜 웃음은 눈가의 주름도 같이 주름지며 웃는 것이다.

하지만 가짜 웃음은 입은 웃고 있지만 눈가에 주름이 지지 않는다. 즉,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은 게 가짜 웃음이다.’ 이렇게 표정은 웃고 있어도 표정에 따라 가짜,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처럼 눈빛은 속일 수 없다. (눈가의 주름과 눈빛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한 눈빛은 표정과 달리 아무나 읽을 수 없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은 눈빛을 보고 내가 화났는지 알아채시고 물어보신다.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눈빛을 읽어봤는데 잘 안 된다. 눈빛을 읽는 것은 삶의 지혜로 터득할 수 있겠지만 눈빛은 아무나 읽을 수 없다.

자존심과 자존감 (김도은)

쉽게 비유하자면 누군가 날 때리는 것은 넘어갈 수 있지만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자존심, 누군가 날 욕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지만 때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자존감.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한자부터가, 자존심(自尊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을 높여 세우는 마음(心)

*오디세이학교_민들레 친구들이 ‘문학과 성장’ 시간에 만든 ‘주관적인’ 마음사전 일부를 나눕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힙니다.

이니까. 자존감은 마음이 아니라 감, 그렇게 느끼는 것이니까.

살면서 자존심과 자존감은 없으면 곤란한 존재다. 반대로 너무 넘쳐도 곤란하다. 없으면 밑바닥에서 기어가며 살아도 이상한지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넘쳐흐르면 자기 의견과 기세를 꺾을 줄 모르는 누구처럼 되어버리니까. 이 유형은 간혹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탑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탑을 하나도 쌓지 않는 사람과 탑을 너무 높게 쌓아 위태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탑이 너무 높거나 낮은 사람은 불쌍하다.

자존심과 자존감 둘 다 자기방어에서 나온다. 특정 부위를 찔렸을 때 자존심/자존감을 내세우며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 불쌍해 보인다.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추잡해 보이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다면 이런 감정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내가 이런 글을 쓰고 있지도 않았겠지.

자존감과 자존심 (유윤경)

자존감과 자존심. 전부터 관심 있던 질문인데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다. 자존감은 자아존중감이다. 즉,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없으면 일상생활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당장 인간관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힘들어 하며 극단적으로는 나를 해칠 수 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존감이다. 결론적으로, 자존감 없인 살 수 없다. 반면, 자존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오히려 없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갈잡은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존심은 때에 따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형이지만 자존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형인 것 같다.

질투와 시기 (김도은)

질투,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나타나는 감정의 응어리.

시기,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느끼는 증오.

질투와 시기는 어딘가 애증이 묻어나오는 것 같다. 특정한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자극된 열등감이 증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뭐가 다른 것일까? 질투는 사람 자체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고, 시기는 그 사람의 능력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 어느 쪽이 더 비참할까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처절해지기에 그만두게 된다. 사랑과 존경에서 나오는 샘과 미움.

사람이 질투와 시기를 느끼는 상황은 너무나 많다. 하다못해 동물들도 느끼는데 말이지! 하지만 인간의 경우 다른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생물이니 그 점이 더 불쌍하고 발악적인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를 떨쳐내는 방법을 모른다. 이미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부터 족쇄에 사로잡힌 듯 헤어나올 수 없고 떨쳐내려고 생각하려는 순간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인간은 생각하기에 나약해질 수도 있는 동물인가보다.

질투와 시기 (서정민)

질투는 자기 것을 뺏기면 질투하는 것이고 시기는 남이 잘되는 것 자체를 배아파 하는 것이다. 적당한 질투는 연인사이에 필요하다. 좋아하는 사람이다른 사람과 연락하면 질투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는지 따라서 결과가 다를 것 같다. 표현을 잘하면 상대방도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 시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누군가가 잘 되는 것 자체를 배아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나 상대방 둘 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이기심과 자기에 (이한)

나만 좋은 것이 이기심,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다. 이기심은 자기에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에에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나를 사랑하고 가치를 높이고 싶은 것은 내 이익만을 꾀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일은 아니니까. 이게 과부하에 빠지면 그게 이기심이 되는 거

다.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게 되는 것. 그게 이기심, 날 사랑하는 것이 자기애.

반항과 저항 (김치성)

반항의 경우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거나,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사례가 연상되곤 한다. 이런 일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그저 단순한 충동,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일시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을 반항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반항은 의지가 꽤 가볍다. 그저 충동으로 표출되는 것일 뿐 그 외에 어떠한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자립심의 원동력이 된다면 몰라도).

한편 저항의 경우 무언가 거대한 힘에 미약하게나마 맞서는 것이 연상되며, 이 원동력은 그저 단순한 충동이 아닌 변화에 대한 욕구, 분노로 점철된다. 또한 반항과는 다르게 일회성이라고 볼 수 없다. 애초에 그 저항의 대상이 그것을 굴복시키거나 굴복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이 요원하다. 의지도 반항과는 다르게 무거운 것이, 반항이 충동이나 호기심, 즉 그다지 진지하지 않은 자세로 시작된다면, 저항에는 결국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며, 압제에 맞서고자 하는 욕구가 주로 자리 잡고 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의지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반항은 쉽고 저항은 어렵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의지의 진중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실과 진실 (이한)

사실이 아닌 것은 허구인데, 진실이 아닌 것은 거짓이다. 우리는 실재하는 나의 솔직한 생각이나 어떤 사건을 말하기 전에 사실, 이라는 전제를 깬다. 이것은 허구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부분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를 가리키는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 텀블러를 위에서 바라보면 원이고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텀블러 전체가 원인게 진실은 아니다.

사실과 진실 (이무현)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그 자체이다. 하지만 진실은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은 등글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변할 수도 있고 그런 내 마음을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은 변할 수 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말처럼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사실과 진실 (이성주)

위키(Wiki)는 사실만을 말하는가? 언론은 진실만을 전하는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느 부분을 말하느냐에 따라 왜곡 될 수도 있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인가? ‘이 사람이 이랬대’라는 사실에 MSG 조금만 쳐도 그 사람은 천하의 ‘뭉쓸 놈’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선행을 베푼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언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키와 언론 둘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주목을 할까? 간혹 위키가 언론보다 나을 때도 있다. 위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성별, 정치성향, 종교, 동성애자, (어떤 것이든)덕후 등)이 모인다. 물론 위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위키일수록 다양한 서술이 포함되어있다.

솔직함과 정직함 (서정민)

솔직함은 생각 없이 있는 사실을 자신의 감정과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솔직함은 가끔 필요하고 가끔은 필요 없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땐 솔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직함은 도덕적인 생각을 하며 말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나 말을 할 때 ‘정직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직한건 항상 정직해야 한다.

솔직함과 정직함 (이무현)

솔직함은 내 맘이다. 진실을 숨기고 있다가 말한 것이다. 정직함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착함과 선함 (송지민)

보통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지 선하다고 하진 않는다. 착하다는 것은 고의적인 선의, 선하다는 선하다 그 자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과연 관대해지고 착해질 수 있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잘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착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분에서 착함은 목적을 가지고 베푸는 선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선한 것은 아무 목적 없이 그 사람이 좋은 싫든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순수함과 순진함 (송지민)

순진한 것은 무엇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고 순수한 것은 무엇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수해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성격이 순수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전하고 싶어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순진하다고 해서 그게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미숙한 것이지, 덜떨어진 게 아니다. 그런데 성격이 순수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살 것 같고 순진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속고 다닐 것 같다. 결론은 난 둘 다 싫다.

안톤체홉 단막극 공연*을 마치고

허영미

책이 좋아 시작한 책 읽기 모임에서 희곡을 읽게 되었다. 그렇게 한권씩 읽어 가던 중 어느 날부터 초대 받아 시작된 낭독 공연. 동네 책방에서 작게 시작한 희곡 읽기 모임은 낭독 공연으로 이어졌다. 처음엔 셰익스피어의 『오델로』, 『한 여름 밤의 꿈』, 그리고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등. 그러다가 지난 3월에는 소극장을 빌려 안톤 체홉의 단막극 세 편을 낭독극으로 올리기가 했다.

동네책방 테이블에 모여 앉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한 작은 낭독모임이 학교 운동장에서 시작해 경전철 역 작은 공간, 동네 도서관, 다른 동네의 작은 도서관등에서 낭독 공연을 하게 되었다. 대단하지 않아도 큰 박수와 칭찬으로 맘이 뿌듯했던 순간들이 참으로 행복했다. 그렇게 시작한 공연이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연장 무대에 서게 된 것이었다.

이번 안톤 체홉 단막극 공연은 「재판전날 밤」, 「청혼」, 「곰」,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한 작품을 다 같이 해서 몰랐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선의의 경쟁심이 보이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함께 출연한 선생님들과 두 달여의 연습 과정을 보내며 웃기도 긴장하기도 했던 뜻깊은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낭독공연

안톤 체홉 단막극

재판전날 밤

청혼

곰

2019 3. 30 (토) 19:00

극장 봄
(서울시 양재구 삼성로 14)

주최(주관) 고려이닝쿨책_아책의 희곡 낭독 모임
후원 극장 봄, 서울문화재단

작	안톤 체홉
출연	김정호, 김기호, 김기현, 김예진, 윤지현, 심민호, 이연수, 임민정, 허영미, 홍승환
스텝	고경남, 김기현, 김수정
문의	010-7266-4705
후원계좌	SC저축 283-20-177385 이연수
전화	5,000원

*호박이닝쿨책_아책의 희곡 낭독 모임은 지난 3월 30일 극장 봄에서 안톤 체홉 단막극 세 편 - 「재판전날 밤」, 「청혼」, 「곰」 - 낭독극으로 공연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긴 시간도 아닌 일주일에 한 번 모여 2-3시간 정도 연습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도 했었지만,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 멋진 추억이 생각나 나를 미소 짓게 한다.

몸으로 연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못지않게 목소리 하나로 멋지게 낭독 연기를 해 낸 열정적인 동료들이 있었기에 성황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아주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작은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였지만, 우리에겐 큰 무대였다. 우리의 우려와 달리,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전석 매진이었다. 자리가 없어 발걸음을 돌려 되돌아가신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우리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그렇게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 누군가는 낭독극이 아니라 제대로 연극을 해보자고도 하지만, 낭독공연 만으로도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모두들 연습 때 보다 잘 해서 빛을 발할 수 있었고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었다. 함께 출연한 모든 출연자 분들과 스태프 분들 그리고 도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쌀쌀한 삼월 비 내리는 토요일.
공연을 마치고

독립영화 보러 많이들 와주이소

- 영화 보는 <야책>

김정훈

올해도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야책으로 독립영화들을 가져다 주셨다. 매달 하나씩. 봤던 영화들을 소개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은 바람을 담는다. 상영된 영화들 모두가 괜찮았기에, 앞으로 올 영화들도 괜찮을 것 같기에. 앞으로 영화 보러 많이들 와주이소~~~~~.

* 소개 글들마다 어투가 다르네요. 영화라는 게 참... 소개하는 제 어투에도 영향을 끼치는군요;;;

<어른이 되면>

(감독 장혜영 출연 장혜정 장혜영 유인서 이은경 : 6월 상영작)

이 영화는 감독이 시설에서 살던 서른 한 살의 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며 시작된다. 동생이 시설에 들어간 나이가 열 세 살 이니 감독 얘기대로 시설을 탈출하는데 십 팔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이다. 그렇게 오래 머문 시설의 환경 탓일까? 동생은 언니에게 지적을 받을 때면 일단은 꼭 소리지른다. “죄송합니다!” 언니와 택시를 같이 탄 동생이 기사 분께 외친다. “노래 틀어주세요! 트로트 틀어주세요!” 이 대목에서도 시설의 환경이 대충 짐작된다.

이 즈음 되면 이 영화가 시설의 혹독한 환경에서 자란 동생의 암울한 경험을 얘기할 것으로 짐작들 하시겠으나, 동생의 모든 말과 행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유쾌한 웃음을 짓게 한다. 분명 이 영화는 발달장애를 지닌 여자의 사

회적응 기록이고 그 적응이 녹록치 않음도 보여주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내 내 유쾌하다. 왜 그럴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감독의 친구들이 스무 명 정도 되는데, 감독은 동생을 자기 혼자 돌보지 않는다. 이 모든 친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간 내어 동생과 함께 지낸다. 각각의 친구들이 동생에게 겪는 어려움은 각양각색이나 그 어려움이 모두 조금씩, 조금씩 나뉘지다 보니 그 어려움들이 모두 유쾌해 보인다.

영화를 보다 보니, 동생의 인생이 참 아깝단 생각이 든다. 그림도 잘 그리고 나름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추고 외국어도 조금조금 여러 개를 말하고, 시설에 방치되지 않고 좀 더 관심을 받으며 돌봐졌더라면 그래도 자기 인생 하나 살아갈 힘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언니는 얘기한다. 장애를 지녔단 이유로 인생 내내 좁은 세상만 경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동생과 함께 자신도 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노래도 만드는 언니는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콘서트를 준비하고 동생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콘서트에는 오랜만에 아빠도 오고 언니와 형부도 오고 친구들 또한 아주 많이 온다. 장애인.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이 산다면 장애가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동서식품”, “커피를 마셔서 잠을 못 잤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스티커 사진에 꽃혀서 찍고, 찍고 또 찍고 싶어 길가에서 ‘땡깡’을 부리며 영화 스텝들의 애를 먹이는 동생이, 난 이 동생이 무척 유쾌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리라. 그 주변에 언니만 하나 달랑 있어서 그 모든 동생의 일들을 달랑 혼자만 감당해내고 있었다면 그 둘 모두의 삶이 얼마나 힘겨워 보였을까?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유발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

으나, 이 영화는 보여준다. 그래도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함을. 모여 살아야 유쾌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금 아쉽다. 동생이 어렸을 때도 그 주변에 함께 지낼 사람들이 많았었다면...

〈1991, 봄〉〈감독 권경훈 출연 강기훈,정형석 : 5월 상영작〉

이 영화는 주로 강기훈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 후 어떻게 삶을 견디었을까? 그 억울함을. 그는 될 수 있는 한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일들에만 몰두합니다. 그는 삶의 지향이 뚜렷한 사람이었으나, 그 사건 후 내내 자신이 살고자 했던 인생과 멀어지려 애를 썼습니다. 그가 그러는 동안, 그를 그렇게 만든 판검사들은 더 높게 더 높게 출세하고 지금도 큰 소리 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 정말로 후회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고 죽인 사람들의 편을 들까' 박승희 열사의 일기에는 당시 스물 한 살 청년의 스물 한 살다운 고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서를 남깁니다. '내 서랍에 코스모스 씨가 있으니 2만 학우가 잘 다니는 곳에 심어주라. 항상 함께 하고싶다'. 유서에 코스모스를 심어 달라니...: 당시 학생 운동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길가에 꽃을 심고 싶었던 청년들. 하지만 그런 마음 고이 낼 수 없었던 세상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몸을 태웁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리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을까? 영화 속에는 박승희 열사의 선배도 나오는데, 나는 이 선배가 자주 생각납니다. 88학번. 내 포래여서인지 더욱 그녀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이이는 후배였던 박승희의 죽음 후 세상에 나오질 못 했습니다. 운동권이었던 이이가 세상에 등을 지다니...: 아마 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만약 내 직속 후배가 분신을 했었다면, 저라고 별 도리 없었겠죠. 그런데... 산다는 게 참...

세월호 아이들이 죽고, 이이도 자신의 아이들과 몇 날 몇 일을 울며 지냈는데, 당시 고3이던 자신의 아이가 서울로 걸어 올라가던 세월호 어머니들께 작별인사라도 하겠다며 길을 나서고, 이이는 아이와 함께 현장엘 가고, 아이는 아버지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이이는 그렇게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안동에는 김영균 열사의 4년 선배가 그의 추모사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며 수확물들을 장기수 가족분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보냅니다. 초로임에도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 같은 그 안동 사람에게서 선비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학생운동은 그 선비정신에 뿌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기훈의 후배가 얘기합니다. 학생운동은 보수주의 운동이었다고 동감합니다. 학생운동이 추구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법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야만군인들이 문명인들 위에 군림하며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는 것에 저항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단어를 친일파들이 훔쳐 쓰고 있을 뿐이지 보수라는 것은 사실 상식과 법치 아니겠습니까?

당시 학생 운동가들의 마음은 소박했습니다. 길가에 코스모스 심고 싶었던 젊음이었고 후배의 죽음 후 차마 세상에 나설 수 없었던 섬세하고 여린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의 내 마음도 그랬겠지요.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보고 난 후에도 자고 일어난 이 아침에도 내내 눈물이 솟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도 무언가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영화 속 모든 이들이 내 안의 그 무언가를 자꾸 끌어내기 때문일 겁니다.

〈버블패밀리〉 (감독 마민지 출연 노해숙 마풍락 마민지 : 4월 상영작)

이 영화의 내러이터인 감독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수완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다. 수완? 집과 땅을 잘 사고 잘 팔았다는 얘기! 허나 부

모님의 그 수완 덕에 감독은 어려운 청소년기를 맞는다. IMF가 터졌기 때문이다. 그 후 어려움은 지금까지 계속된다. 그런데도 그의 부모는 여전히 부동산에 집착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영화는 그 의문에서 시작된다. 뭐... 이렇게 시작된 영화라면 상식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어떤 결말이 날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감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결론이 좀 엉뚱하단 얘기! (결론은 영화를 직접 보고 확인하시길^^)

그나저나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들 하는 걸까? 나 또한 부동산 실수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는 내내 자책모드! 그러면서도 감독의 부모님이 이해되는 결론! (스포일링 전혀 안 하려 했으나 어쩔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이^^;;)



